

碩士學位論文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  
- 돌문화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康 娟 實

2008年 8月

#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와 문화콘텐츠화 방안

- 돌문화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許南春

康娟實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8月

康娟實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8年 8月

#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의의.....	1
2. 연구 방법 및 범위.....	3
II.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	5
1. 돌담.....	5
1) 기원.....	6
2) 종류 및 기능.....	7
3) 문화사적 가치.....	13
4) 현황 및 보존 방안.....	16
2. 정낭.....	20
1) 기원.....	20
2) 명칭.....	21
3) 기능 및 의미.....	22
4) 문화사적 가치.....	25
3. 돌하르방.....	27
1) 기원 및 특징.....	28
2) 명칭.....	34
3) 기능.....	36
4) 문화사적 가치.....	38
III. 제주문화상징물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41
1. 제주문화상징물의 의미.....	41
2. 제주문화콘텐츠화의 의미.....	44
3. 제주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안.....	50
1) 돌담.....	51

2) 정낭.....	52
3) 돌하르방.....	54
IV. 결론.....	57
참고문헌.....	66



## Abstract

### **The value of symbolic figures for Jeju culture and measures to make cultural contents**

Kang YoenSil

The cultural heritage of Jeju made by overcoming barren natural and historical environment throughout the years is regionally unique. Therefore, the core of the argument for Jeju or identity of people in Jeju will be the very culture of Jeju.

Culture becomes property and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so called 'the period of culture'. The culture of Jeju has infinite potential in this period.

Not only food, clothing and shelter but also even the symbol of faith is made of stone in Jeju. And so this stone culture can be infinite potent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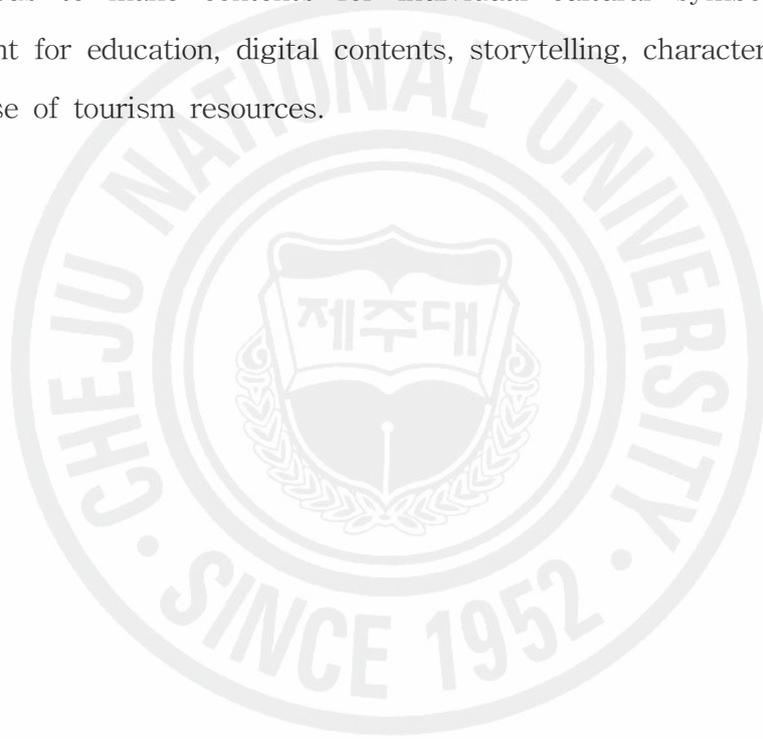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essential meaning of cultural history and spiritual history of Jeju culture and to identify people in Jeju. Also, it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Jeju culture based on the universality of Korean culture to seek for the use measures based on this cultural archetype, and to suggest a way to globalize Jeju culture in the 21st century when is led by the cultural industry.

The argument will be developed with 'stone culture' which is selected one of the ten cultural symbolic figures of Jeju among many symbolic figures of Jeju culture to find out the identity of Jeju culture. Among them, the scope of this study will be limited to 'stone wall', 'Jeongnang', and 'Dolharubang'.

It is true that recent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y only focus on the industrialization while neglecting to find the cultural archetype and study cultural contents. Therefore, in-depth and systematic research and study on the archetype of Jeju culture needs to be preceded for resulting in

substantial outcome in cultural contents business in Jeju. And understanding the meaning and value of cultural symbolic figures of Jeju and storytelling is important to turn them into cultural contents . Especially storytelling should reflect ecological consciousness which considers nature as an object of co-existence, not conquest.

Cultural contents mean contents originated from cultural materials and things could be used for items in the cultural industry. This study will suggest the meaning and value of ‘stone wall’, ‘Jeongnang’ and ‘Dolharubang’, and methods to make contents for individual cultural symbolic figures in edutainment for education, digital contents, storytelling, character development, and the use of tourism resources.



# I. 서론

## 1. 연구 목적 및 의의

제주문화는 독특하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자연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며 독자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제주 혹은 제주인의 정체성 논의의 중심은 바로 제주문화일 것이다.

신화, 굿, 민속 등은 한반도 본토는 물론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이다. 하지만 제주의 신화, 굿, 민속은 그것들과는 변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고대문화를 온전하게 지속시키면서도 중세를 비판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제주문화는 제주, 제주사람을 바깥과 구별 짓는다. 따라서 제주와 제주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규명해야 제주인의 정체성이 정립될 것이다.

정보사회의 중요성에 대해 한창 떠들썩하더니 어느새 인류는 문화의 시대에서 문화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살고 있다. 정보의 개념보다는 지식 기반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21세기는 삶의 전반적인 형태가 문화로 가고 있으며, 그 삶의 형태의 무형적 측면에 부가가치를 두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즉 오늘날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 화두는 전통문화의 세계화이다. 문화 경쟁력은 민족과 나라의 운명을 걸 만한 든든한 무기이다.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원형자질은 무한한 가치 창조 작업의 잠재적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관련한 지역문화의 콘텐츠화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핵심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문화콘텐츠는 국가 문화산업의 주요 전략부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지적 감각과 지적 재산권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sup>1)</sup>

1) 이창식, 『전통 문화와 문화콘텐츠』, 역락, 2006, 367쪽.

이처럼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제주문화는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는 자연환경과 긴밀한 상관성 속에 놓여 있다. 제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큰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제주의 자연환경은 돌로 상징화된다. 돌로 뒤덮인 땅덩어리이기에 의식주를 비롯하여 신앙의 표상까지도 돌로 만들어진 것이 많다. 돌문화 하나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산업으로 연결되었을 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기초가 될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문화산업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산업이어야지 반대로 산업을 위해 즉 상품화를 통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문화를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원형 발굴 작업에 인문학자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지역의 문화는 문화 주체인 사람과 지리적 지역성과 사회 역사성의 산물로, 제주문화는 제주의 자연 환경과 문화 주체인 제주사람과 그들이 살아 온 역사와 그들이 이룩해 놓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화 주체자의 의식은 다양한 문화 양식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내재해 있다. 제주의 다양한 문화 양식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내재해 있는 제주문화 주체자인 제주인의 의식을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지난 2006년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민족문화 100대 상징물을,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부가가치 창출이 우수한 것으로 10대 제주문화상징물을 각각 선정하였다. 이들 문화상징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이다. ‘상징’이란 우리 마음과 행동 깊숙이 깔려 있는 그 무엇인가이다. 원형질, 심층, 저변, 속내 같은 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상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화의 속살이 아니라 껍데기만 이해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상징물들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혀 줄 수 있는 열쇠이다.

이 중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제주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매개이다. 제주문화상징물 선정 작업을 통해 학술적 고증과 분석, 이론적 지원과 천착 등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문화의 정신사적·문화사적인 본질적 의미를 찾고 제주사

람들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한국문화의 보편성 위에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이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21세기에 제주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주문화상징물의 의미와 콘텐츠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선행 연구되었던 문헌적 고증 및 기초적인 자료와 연구 논문 등을 토대로 하였다. 각각의 문화상징물의 학술적 고증과 분석을 통해 그것들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밝히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혀 줄 많은 제주문화상징물 중에서 제주 10대 문화상징물로 선정된 ‘돌문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돌담, 정낭, 돌하르방으로 연구범위를 한정시킨다. ‘돌담’은 삼다도 제주의 상징으로 현무암 돌담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이 있으며, 이는 생활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제주가 돌의 고장임을 알리며 흑룡만리라 불릴 만큼 제주 전역을 수놓는 중요한 미학적 요소이다. 또한 ‘돌하르방’은 제주를 상징하는 석조물이라는 점에서 선정하였다. 물론 제주 돌문화의 하나인 동자석 역시 제주 석상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문화상징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자석을 포함한 제주 석상에는 미륵, 다수의 문·무인석, 돌하르방, 거옥 등이 있다. 이 석상들은 제주 돌문화의 변주로서 각각 역사적 의미 및 기능, 의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돌하르방이 10대 민족문화상징물로 선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고려하여 제주의 많은 석상 중에서도 ‘돌하르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한편 ‘정낭’은 제주도 특유의 대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이웃과의 신뢰 및 정보 소통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물론 ‘정낭’은 정주목에 걸쳐 놓은 긴 나무막대기를 의미하므로 이를 돌문화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무막대를 가로로 걸쳐 놓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양쪽으로 세운 기둥 중에 나무로 만들었던 것보다 돌로 만들어진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 정주목과 정낭을 합쳐 정이라 하지만, 제주에서 대문 역할

을 하던 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정낭’이라는 점 때문에 돌문화에 포함시키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척박한 자연 환경과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자 한 과거 제주인의 노력이 다양한 생활문화 및 역사·언어·신앙으로 남아 있다.<sup>2)</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돌담, 정낭, 돌하르방만으로는 제주인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본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10대 제주문화상징물은 물론 그 이외의 제주문화상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제주문화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물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 ‘돌하르방’에 대한 연구는 과거 김영돈, 현용준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 핵심적 특성이 적절하게 지적되었다. 그러나 민속적 가치 이외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초보단계라 하겠다. 또한 ‘돌담’과 ‘정낭’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접근한 연구물은 드물고, 역시 문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도 미미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려는 것이 아니다. 제주학 정립을 위해 우리 지역 문화를 다른 지역 문화와 비교 연구하여 차이점을 찾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여 보존하자는 데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문화콘텐츠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때, 제주문화를 다각도로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 문화산업의 대안을 정립하고자 한다.

---

2) 생활문화로서 갈옷(의), 굴(식), 제주초가(주)가, 자연환경으로서 한라산과 오름이, 역사로서 제주4·3, 언어로서 제주어, 민속신앙으로서 해녀, 제주굿 등이 제주 10대 상징물로 선정되었다.

## II. 제주문화상징물의 가치

### 1. 돌담

돌담은 제주의 미학적 요소이다. 하지만 돌담의 미학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다방면의 학술적인 연구 결과는 드물다. 제주 돌담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는 최용복<sup>3)</sup>과 이상영<sup>4)</sup>의 관광문화자원으로서의 실태 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제시가 있으나, 생활문화유산으로서의 돌담의 미학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결과는 아니다. 민속학적 관점에서의 돌담에 관한 연구는 돌문화의 하나로서 거론<sup>5)</sup>되거나, 산담<sup>6)</sup>, 원담<sup>7)</sup>, 환해장성<sup>8)</sup> 등에 관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돌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읽어 낸 연구<sup>9)</sup>가 있다. 돌담의 구조분석 연구를 통해 무작위적이고 불규칙적인 구조 속에 수학적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돌담의 미학적·문화적 가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돌담의 기원 및 종류, 기능 등에 관해 문헌 및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하는 한편 미학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를 살펴볼 것이다.

3) 최용복,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농촌계획』 12집, 한국농촌계획학회, 2006.

최용복·정문섭, 「GIS를 활용한 농촌경관 분석 사례연구-제주도 돌담경관을 중심으로」, 『한국GIS학회지』 14권 3호, 한국GIS학회, 2006.

4) 이상영,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계획』 13집, 한국농촌계획학회, 2007.

5)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종양,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6) 김유정·손명철, 『제주의 민속문화②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2007.

7) 고희민, 「바다의 기술과 민속」,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2004, 145~154쪽.

8) 강창언,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집, 탐라문화연구원, 1991.

9) 강동언·고봉수, 「제주돌담의 구조 분석 연구」, 『제주조형연구』 1호, 제주대학교 조형연구센터, 2006.

## 1) 기원

돌담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산에는 짐승이 있고, 들에는 가축이 있어 수없이 무리지어 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밭에 돌담을 둘러야 한다. 사람이 사는 집 또한 으레 돌을 쌓아 높다란 담장을 만들어서 이에 돌담으로 골목이 이루어진다.<sup>10)</sup>

전야(田野)를 바라보니 만가(萬家)의 유지(遺趾)처럼 담벽이 종횡으로 있었다. 대개 당초 한 사람도 없을 때에는 모두 어지럽게 돌이 쌓여서 무더기를 이루고 있었는데, 후에 점차 경간(耕墾)하는 땅으로 만들면서 밭두둑과 이랑으로 개척하므로 멀리까지 전답을 만들지 못하고 단지 밭머리에다 돌을 모아 쌓은 것이 곧 담장을 이루었다. 무덤이 밭속에 많이 있고 또한 사면으로 돌을 쌓았는데, 소와 말이 들어가서 밟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sup>11)</sup>

돌을 모아 울타리를 쌓는다. 지지(地誌)에 옛날 밭둑이 없었으므로 강포한 자가 병탄(并呑)하였었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었을 때 령(令)으로 각각 울타리를 만들도록 하니 백성들이 이를 편안히 여겼다. 지금의 밭둑과 집 곁에도 모두 담장이 있는데, 다만 경계를 정할 뿐 아니라 또한 목장의 말을 막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돌담을 언제부터 쌓았는가 하는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동문감(東文鑑)』에 보이기 때문에 대략 800년 이전으로 본다. 『동문감(東文鑑)』에 “제주 밭이 예전에는 경계의 둑이 없어 강하고 사나운 집에서 날마다 차츰차츰 먹어들어 가므로 백성들이 괴롭게 여겼다. 김구(金丘)가 판관이 되어 주민의 고통을 물어서 돌을 모아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드니 주민이 편하게 여기는 것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고려시대 1234년(고종 21) 최초의 제주판관 김구가 밭과 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권세가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고자 ‘돌담’을 쌓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과 돌이 많은 제주

10) 임제, <남명소승>, 『譯註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74~75쪽. 山有獸野有畜千百其群 俛俛而行故爲田畝者 必繞以石垣焉 人家亦皆築石爲墻墉以作門

11) 김성구, <남천록>, 望見田野 如萬家遺址 墻壁縱橫 蓋堂初無人之時皆是積石亂堆 後漸爲耕懇之地 因恢拓墾畝而不能遠關 只就田頭累築仍成垣墻 墳塚多在田中 而亦皆四面石築 所以禦牛馬亂闖入蹴踏之患也

12) 이형상, <남환박물>,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8. 聚石築垣 地誌 古無田畔 强暴并呑 金丘爲判官時 令各爲垣 民皆便之 今之田畔家傍 皆各有墻 非特定界亦以禦場馬

자연 환경의 특징으로 보아 돌담의 이용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즉 나와 너의 경계를 가르는 것보다 바람을 막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다.

제주는 화산섬으로 밭에는 물론 심지어 바다에까지 돌밭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돌로 만든 다양한 생활문화가 많다. 즉 돌이 많은 자연 환경의 영향으로 돌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돌담 역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 생겨났을 것이다. 물론 돌담은 경계를 구분하고, 마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겠지만 무엇보다 바람을 막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즉 돌담은 바람 많은 섬 제주에서 마소로부터 곡식을 지키고 가옥을 바람의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일찍이 필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돌담은 집을 짓고 촌락을 형성하고 밭 농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생겨났을 것이다. 단지 김구 관관이 제주에 부임했던 13세기 당시 김구에 의해 계획적·대규모로 정리사업이 있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추측한다.<sup>13)</sup>

고려 고종년간(1213~1259)에 김구가 관관으로 부임했을 당시 제주의 토호가 여전히 크게 발호했고, 이 토호들은 탐라를 고쳐 제주라 명명했다. 백성의 땅을 잠식하거나 경계를 넘어 세금을 거두는 등 폐해가 심하였다. 김구는 백성들을 위해 돌로 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고, 경제적 편익을 도왔다. 김구가 돌담을 쌓아 경계를 만든 것은 기존의 토호 세력을 제압하려는 방식이었고, 밭두둑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서민 경계를 돌보고자 함이었다.<sup>14)</sup> 이때 돌담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바람을 막아 농사를 돌보고자 하는 돌담은 이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 2) 종류 및 기능

돌담은 산과 밭, 주거 공간, 해안 등지에서 소유권 경계, 바람막이, 방어시설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돌담은 쌓는 장소 및 방법이나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능도 다르다. 또한 돌담의 다양한 종류만큼 명칭 또한 다르다. 인간의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돌담’의 종류에 따른 명칭을

13) 김종석, 앞의 글, 28쪽.

14) 김석익, 『탐라기년』,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355쪽. 高宗幾年 時改耽羅爲濟州 置副使判官 土俗無疆畔 強暴之家 日以蠶食百姓苦之 時判官金坵 問民疾苦 聚石築垣爲界民多便之

살펴보면 제주인의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도 돌담은 있으나 제주의 돌담과 같이 다양한 쓰임새와 그에 따른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다.

돌담에는 집담, 밭담, 올렛담, 원담, 산담, 통싯담, 잣백(담), 머들(돌) 등이 있다. 집 울타리에 쌓는 돌담을 ‘집담’, 밭의 경계를 짓거나 흙이나 씨앗의 불림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밭담’, 마당과 거릿길을 잇는 올레의 돌담은 ‘올렛담’이라 했다. 또한, ‘원담’은 어로작업을 목적으로 해안 돌바닥에 축조하여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는데 활용하였다. ‘산담’은 무덤의 경계를 표시하였으며, ‘잣담’은 고려시대 마소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에 축조되었던 담이다. 그리고 통시의 돌담을 ‘통싯담’, 밭의 자갈이나 땅 길과 속에 박힌 돌덩이를 깨내며 성처럼 넓고 기다랗게 쌓은 것은 ‘잣백(담)’, 밭에 담처럼 쌓아 올린 돌무더기들은 ‘머들’ 혹은 ‘머들돌’이라 했다.

집담은 집의 울타리를 에워 쌓은 돌담이다. 남태평양의 태풍과 강한 바람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기 위해 돌담을 쌓았다.

밭담은 마소의 출입을 막고 바람막이 구실을 하여 농작물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다. 가을걷이가 끝난 밭벼·메밀·콩·고구마 등을 재배했던 밭이나, ‘출(꿀)’을 베어낸 ‘출왓’은 우마를 가둬 먹이는 임시 방목장 역할도 했다. 그리고 밭농사가 주업인 시절에는 아낙네들이 젓먹이를 밭에 데리고 가서 ‘그늘막’을 쳐 그 안에 애기구덕을 놓고 ‘검질메는 노래’를 부르며 김을 매기도 하였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밭의 돌담을 밭담이라 하며, 초가지붕을 덮는 새(띠)를 기르는 밭의 돌담을 ‘새왓담’, 겨울에 집에 가둬 소와 말에게 주는 ‘꿀’을 기르는 밭의 돌담을 ‘출왓담’이라 한다. 이른 봄에는 우마의 임시 방목지가 되지만, 일정 시기가 되면 새왓과 출왓은 우마의 방목이 금지된다. 새왓은 청명과 곡우 절기 사이에, 출왓은 음력 5월 망종 고비에 허물어진 돌담을 쌓는데 이것을 각각 ‘새왓담 추린다’, ‘출왓담 추린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새왓’과 ‘출왓’ 군데군데에 우마의 방목을 금한다는 표징으로 쫓는 나뭇가지나 땃가지를 ‘중’이라 하고, 그것을 쫓는 일을 ‘중 쫓는다’고 말한다.

올렛담은 큰길에서 집으로 출입하기 위한 골목에 쌓은 담이다. 이는 안과 밖을 구분하면서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차단해서 독립된 공간을 가지려는 경계성 및 영역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원진은 『탐라지』 ‘풍속’조에 “밭머리에 무덤을 만든다<sup>15)</sup>”라며 제주 무덤의 특이성을 기록하고 있다. 무덤을 제주에서는 ‘산’이라 하고, 무덤을 에워 쌓는 돌담을 ‘산담’ 또는 ‘산잣’이라 한다.

죽음의 문제는 삶의 가장 큰 문제임에 틀림없다. 제주의 돌문화를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로 나누어 보면, 삶의 문화 속에서 죽음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죽음의 문화 가운데 산담을 하나의 문화적 개념으로 확장해 산담문화라는 틀로 정리하면 제주문화에서 산담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sup>16)</sup> 일반적으로 집의 울타리를 에워 쌓은 집담과 올렛길의 올렛담은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고, 밭의 경계를 위한 밭담, 목축의 방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쌓은 잣담 등은 모두 삶의 실생활과 밀접한 돌문화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산담은 죽음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문화적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서의 산담은 신성한 돌담이며 이승과 저승의 경계이기 때문에 독특한 경관문화를 형성하며 대지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sup>17)</sup>

산담은 돌담의 하나이지만 죽음의 문화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다른 돌담과는 구별된다. 산담문화는 제주인들의 죽음에 대한 의식과 관념형태,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의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산담 안은 죽은 자들에게는 자유로운 공간이지만, 산 자들에게 있어서는 금기의 공간이다. 그러나 산담 안(죽은 자의 공간)과 산담 밖(산 자의 공간)을 이어주는 신문<sup>18)</sup>은 두 개의 전혀 다른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죽은 자의 공간과 산 자의 공간을 이어 주는 유일한 통로로서 산 자가 아닌 죽은 자에게 있어서의 훨씬 자유로운 통로이다. 이 신문의 기능은 집의 울레 끝에 대문 대신 있는 ‘정낭’의 역할과도 같아 ‘정돌’을 올려놓았다. 대문은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통로이지만 집밖에서

15) 이원진, 『耽羅誌』 ‘風俗’條, 田頭起墳

16) 김유정·손명철, 앞의 책, 87~88쪽.

17) 김유정·손명철, 위의 책, 88쪽.

18) 성담처럼 겹담으로 네모지게 쌓은 산담을 ‘쌍담’, 봉분 모양에 따라 타원형으로 쌓은 한 겹의 산담을 ‘외담’이라 한다. ‘쌍담’은 산담 좌우 중간에 30~40cm 간격을 비워 그 위에는 변소의 디딜팡처럼 길쭉하고 넓은 돌 두 개를 산담 가장자리와 가지런하게 얹어 놓는데 이것을 ‘올레’ 혹은 ‘신문(神門)’이라고 한다. 올레는 제주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고 구부러진 골목길인데 이 묘지의 신문이 출입하는 골목과 같다하여 신문을 올레라 부르기도 한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통제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돌은 죽은 자의 입장에서 정낭과 같이 외부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지만 산 자는 물론 마소, 사기(邪氣), 불 등이 산담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금기의 표시이기도 하다.<sup>19)</sup>

산담은 제주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조형물로서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미감과 풍토적인 정서가 스며 있다. 따라서 산담의 미감을 비균제(非均齊)의 미학이라 할 수 있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주의적이며, 선과 형태에 소홀함이 없는 유려함 때문에 역동적 조형미를 준다.<sup>20)</sup>

‘жат백(담)’은 잔 돌멩이나 자갈로 성담처럼 넓고 기다랗게 마주 덧붙여 쌓아 올린 돌담을 말한다. ‘жат’은 ‘성(城)’, ‘백’은 ‘벽(壁)’의 뜻이다. 또한 돌을 밭의 한가운데에 방사탑처럼 모아 놓기도 하였는데 이를 ‘머들’이라 한다. 방풍을 목적으로 ‘жат백(담)’을 쌓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밭에 돌출되거나 흙 속에 감추어진 돌덩이나 돌멩이들을 수시로 캐내며 쌓는 동안에 이루어진 돌담이다. 따라서 ‘жат백(담)’과 ‘머들’이 크고, 많은 지대일수록 농사짓기가 불편하고 거친 땅임을 말해 준다. 화산회토인 제주 토양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아가고 수분 증발이 쉽다. 그러나 밭에 자갈한 자갈들은 바람에 흙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며, 태양열을 흡수하고 습기의 증발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돕는다. 이처럼 농사짓는 데 거름 역할을 하는 자갈한 자갈을 ‘지름작뻐(-작지, -자갈)’이라 한다.

밭담은 밭의 경계를 정하고 마소의 출입을 막고 바람에 씨앗이 날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나 집담은 제주도의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바람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혹은 집의 울타리로 경계를 짓기 위해 만들었을 것이므로 밭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먼저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인들은 돌담을 바다에도 쌓았다. 밀물에 따라 물려든 고기떼들이 썰물이 나갈 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돌담을 쌓았는데 이를 ‘원담<sup>21)</sup>’이라 한다. 원담은 마

19) 김유정·손명철, 앞의 책, 97~98쪽.

20) 김유정·손명철, 위의 책, 115쪽. 그 조형성은 한국미의 보편적 특질인 선의 미학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기와집의 처마선, 벼선코, 누워 있는 활에서처럼 산담의 선 역시 길게 들리듯 구부러져 흘러서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온함을 준다. 또한 산담 앞쪽으로 보면, 밑면보다 윗면이 조금 앞으로 내밀 듯 나와 있다. 때문에 삼각형의 뱃머리와의 같은 인상을 주어 앞으로 쓰러져 있으면서도 언제라도 날아갈 것 같은 역동적인 조형미를 준다는 것이다.

21) ‘원’에는 천연적인 원과 인공적인 원이 있다. 일부러 돌담을 쌓아 만든 원이 인공적인 원이라면, 돌담이

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쌓았으며 강한 파도의 허물어진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수 작업을 하였기에 이는 공동작업장이었다. 돌그물 원은 제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의 큐슈(九州) 및 오키나와(沖繩)<sup>22)</sup>에서도 확인된다.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제주도 인근의 문화집단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의 원담은 그것들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반도에서는 그 담을 돌 또는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들었다. 돌로 만든 것을 ‘돌살(石箭)’, 대나무나 갈대를 엮어 만든 것을 ‘어전(魚箭, 漁箭)’ 혹은 ‘어량(魚梁, 漁梁)’이라 했다. 하지만 제주는 돌이 많았기 때문에 돌로만 견고하게 쌓아 만들었다. 둘째, 한반도 본토의 것은 개인 소유였으나, 제주의 원담은 축조 및 보수, 작업까지 같이 한 공동어로 작업장이었다. 따라서 ‘원담’은 제주 경제사의 측면에서 “마을 공동소유로서 우리 선인들의 생업 경제사와 기술사를 가늠할 수 있는 소중한 생업문화유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sup>23)</sup>

잣성 혹은 잣담은 방목 중인 말들이 농경지로 내려와 입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쌓은 돌담이다. 고려 충렬왕 2년(1276년) 원(元)으로부터 들어온 말을 방목하여 기르면서 목마장은 형성되었다. 원이 망한 후, 목장에서 기르던 말들은 고려에 귀속되었다가 조선 시대 체계적인 마정(馬政)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종은 효율적인 목마를 위해 1429년 고득종의 건의에 의해 한라산 기슭 사방에 돌담을 쌓아, 목장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그 바깥으로 이주시켜 목장과 사람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지역을 양분화 하였다. 지금의 구좌읍 위쪽부터 1소장으로 삼아 서쪽으로 제주를 돌아가며 목장을 10개로 나누었다. 이를 10소장(所場) 또는 10마장(馬場)이라 한다. 이 목마장을 구분하여 쌓은 담을 잣성이라 한다. 잣성은 상잣성, 중잣성, 하잣성으로 나뉜다.<sup>24)</sup> 이 중 상잣성은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

필요하지 않은 즉 지형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원을 천연적인 원이라 한다. 천연적인 원보다 인공적인 원이 더 많다. 천연적인 원은 ‘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린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원은 차이점이 있다. 천연적인 원에 가두어진 물고기는 먼저 본 사람이 입자이지만, 인공적인 원에 가두어진 물고기는 돌담 축조 및 보수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잡을 수 있다.(고광민,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85쪽.) 본고에서는 돌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인공적인 원만을 문제시했다.

22) 오키나와에서는 ‘어원(魚垣)’이라 한다.

23) 제주도, 『제주민속유적』, 제주도, 1997, 30쪽.

24) 공간 분할선으로서 등고선상으로 볼 때, 하잣성은 해발 150~350m 일대, 해발 중잣성은 350~400m, 해발 450~600m 일대를 말한다. 송시대 외, 『제주의 민속문화④ 제주의 곳자왓』, 국립민속박물관, 2007, 81쪽.

와 산림지와의 경계선에, 하жат성은 해안지대의 농경지와 중산간 지대의 방목지의 경계선에 자리잡고 있다. 중жат성은 상жат성과 하жат성보다 축조시기가 비교적 늦은 것이며 중산간지대의 농경지와 목장지를 구분하기 위해 쌓은 것으로 보인다.

жат성은 수탈의 역사가 점철된 곳이면서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삶의 현장이다. 방목중인 마소가 농경지 안에 들어가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쌓기도 했지만, 곳자왈 및 방목지에 대한 개간을 금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마장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제주말은 조선시대에 탐관오리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던 가축이다. 따라서 жат성은 권력을 이용해 중산간 지대를 지배했던 역사를 대변하며, 제주의 전통 목축문화를 입증하는 유물경관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sup>25)</sup>

돌담을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바닷가를 둘러쌓았는데, 둘레가 3백여리이다. 고려 원종 때에 삼별초가 반하여 진도에 옮겨하자 왕이 시랑(侍郎) 고여림 등을 탐라에 보내 군사 1천명을 거느리고 방어하면서 이 성을 쌓게 했다”고 기록<sup>26)</sup>돼 있다. 고려 정부군이 환해장성을 처음 쌓기 시작했으나, 삼별초가 여몽(麗蒙) 연합군의 상륙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쌓았으며, 조선 후기 현종 11년(1845년)까지도 외부의 침입 등에 대비해 보수·축조된다. 환해장성은 어느 한 시기에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까지 6백여년 동안 역사를 이어오면서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의 성으로서 의의가 있다.

국가사적 제396호인 항과두성은 고려 항몽(抗蒙)전쟁의 마지막 전쟁터이다. 항과두성의 바깥은 흙으로 쌓은 토성(土城)이, 내부는 돌로 쌓은 석성(石城)으로 이루어진 내성·외성 이중구조 형태의 견고한 요새였다. 항몽전쟁의 최후 주인공이었던 삼별초 세력은 반몽골·반개경정부를 기치로 항과두성에서 마지막 저항을 했다. 항과두성은 13세기 후반 역사의 중심 무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항과두성을 근거지로 한 삼별초 항전으로 몽골의 일본 정벌은 늦춰졌다. 또한 항과두성은 ‘1270년대’라는 시대적·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성곽사적으로

25) 송시대 외, 위의 책, 76~83쪽.

26) 조선사학회 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권, 『한국지리풍속총서』, 경인문화사, 2005, 211쪽. 沿海環築 周三百餘里 高麗元宗時 三別抄叛據珍島 王遣侍郎高汝林等于耽羅 領兵一千以備之 因築長城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보통의 성곽은 장기간에 걸쳐 축조되므로 시대적 성격이 모호해지기 쉽지만, 향파두성은 단기간에 걸쳐 특히 고려의 지배층 세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향파두성은 단순한 방어용 성곽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도성(都城)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27)</sup>

돌담의 용도는 첫째, 바람 많은 자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풍의 기능을 우선 들 수 있다. 제주도의 올레가 직선이 아닌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도 바람을 완화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밭담은 화산회토의 뜬 밭의 흙이 날려 그것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도 한다. 둘째, 방목(放牧)과 관련되는 것으로 마소의 침입을 막는데 있다. 예전부터 마소를 방목하는 풍속이 있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작지에 임의로 마소가 침입,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으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셋째, 경계의 구실로 김구 판관이 돌담을 쌓게 한 이유도 여기에도 있다고 하겠다. 즉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세력가의 토지 잠식을 막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민심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로 돌을 제거, 정리함으로써 경지면적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다섯째는 작업능률의 향상이다. 제주도가 화산회토로 된 뜬 땅에 자갈이 많이 덮여 있어 토양수분을 보유하는 기름작지(기름자갈)의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돌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밭을 갈거나 제초, 운반 작업 등에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흩어진 돌들을 제거하고 돌담을 쌓음으로써 섬 고유의 문화경관을 형성한다.<sup>28)</sup>

### 3) 문화사적 가치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제주는 검은 현무암이 땅은 물론 바다에까지 널려 있어 이렇게 ‘돌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것과 싸워 나가며 이뤄낸 것 중 하나가 제주의 대표적 경관을 형성하는 돌담이다.

돌담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주의 돌담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주 돌담의 특징을 다른 지역과의 대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본토의 돌담은 대개가 토석(土石)담으로 일정한 크기의 돌 또는 기와

27) 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98쪽.

28) 김종양, 앞의 글, 28쪽.

와 흙, 짚 등을 사용하여 쌓는다. 즉 일정한 간격으로 돌이나 기와를 쌓고 그 위에 짚을 섞은 흙으로 채운 후 다시 돌을 쌓는 방식이다. 흙으로만 쌓은 담은 가벼워서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돌이나 기와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짚을 섞은 흙은 접착제 역할을 한다. 돌이나 기와는 단조로울 수 있는 흙담의 벽면에 장식 효과를 준다.<sup>29)</sup> 이처럼 오로지 돌로만 쌓는 제주의 돌담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본토의 돌담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에는 이시가키<sup>30)</sup>라는 섬이 있다. 이시가키섬의 이름은 섬 내의 집들이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전해지고 있다.<sup>31)</sup> 이시가키섬은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잦아 집을 낮게 짓고 돌을 쌓아 담을 만든다. 돌담의 재료는 모두 기공이 불규칙하고 거친 느낌의 석회암이다. 왜냐하면 이 섬은 산호가 퇴적하여 이루어진 섬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돌담은 촘촘하게 겹담으로 쌓여 있으며, 집의 입구에는 살림집을 보호하기 위해 판석으로 된 석벽(石壁)을 설치하여 큰 바람의 직풍(直風)을 피한다. 이는 곡선으로 쌓아 올린 제주의 올렛담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몽골 유목민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겨울이 오기 전에 적당한 곳에 등지를 틀고 ‘월짜’라는 돌담을 쌓는다. 이는 수십 도가 넘는 영하의 겨울 추위에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sup>32)</sup>

이처럼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돌담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에서와 같이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 돌담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제주는 화산 활동에 의해 이루어진 섬으로서 화산 활동 시 흘러내린 용암이 섬 전체를 덮고 있다. 산과 들은 물론 바다까지도 돌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제주에서의 돌은 농사짓는 데 걸림돌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하고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하고자 한다. 제주사람들에게 돌밭은 척박한 자연환경이었지만 이 돌담을 쌓아 경계를 구분하기도 하고, 마소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바닷가엔 돌그물인 돌담을 쌓

29) 김태일, 「바람난 제주돌담 태풍을 막다」, 『과학동아』, 동아사이언스, 2003, 90~95쪽.

30) 이시가키(いしがき, 石垣)는 ‘돌담’이란 뜻이다. 오키나와 본섬의 나하에서 약 420킬로 남서쪽에 있는 야에야마 제도의 중심 섬이다.

31)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사이트 <http://www.jnto.go.jp>

32) 김유정, 김유정의 문화코드읽기, <돌담, 삶은 기록보다 앞선다>, 체민일보 2007. 4. 5.

아 고기를 잡았으며, 제주 해안가를 빙 둘러 돌담을 쌓아 왜적의 침입을 방어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제주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돌담을 볼 수 있다.

둘째, 제주 돌담은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돌담을 쌓는 장소 혹은 기능, 형태에 따른 다양한 분화 형태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돌담은 모두 자연석으로 쌓았다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야 인공석을 이용하거나 자연석도 모양을 깎아 돌담을 쌓기도 하지만, 과거로부터 돌을 이용한 돌담은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생활문화유산이다.

넷째, 제주도 돌담을 ‘바람그물’이라고 한다. 치밀하게는 쌓되 자세히 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돌담의 원재료인 현무암은 그 자체로도 구멍이 많지만 길게 줄로 이어 쌓은 돌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틈새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쌓으면 거친 바람에 언젠가 돌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을 쌓으면서도 조금씩 바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제주의 거센 바람이 그 구멍을 빠져나가면 돌담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쌓은 돌담이란 한쪽에서 흔들면 전체가 흔들리는 돌담이라고 한다.

돌담의 가치로서 첫째, 역동적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산담은 앞쪽에서 보면, 뒷면이 밑면보다 조금 앞으로 내밀 듯 나와 있다. 이는 삼각형의 뱃머리와도 같은 인상으로 앞으로 쓰러져 있으면서도 언제라도 날아갈 것 같은 역동적인 조형미를 준다.

둘째, 공동체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들 수 있다. 제주의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쌓은 돌담은 개인의 힘으로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즉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동안 이루어진 것이다. 게다가 돌담을 쌓는 데는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둥근 돌 등 가리지 않는다. 즉 필요하지 않은 돌이란 없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돌이 조화를 이루어서 돌담이 형성되는 것처럼 제주인의 삶 역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잘 쌓은 돌담이란 한 쪽에서 흔들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제주인의 공동체 의식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돌담은 아름다운 경관은 물론 그 내재적 의미 또한 가치 있는 것이다.

셋째, 돌담은 미적 가치와 함께 종교적 신성성 및 숭고미를 가지고 있다. 구좌읍 서김녕리 포구에 있는 ‘서문하르방당’은 아이냥기 또는 육아를 관장하는 신이

자리잡은 당이다. 미륵돌을 신체(神體)로 모시고 있으며 제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시로 심방을 모시고 당에 가서 빈다. ‘당 5백, 절 5백’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돌담으로 세운 ‘신궁(神宮)’이라 할 수 있는 당이 있다. 또한 마을제를 지내는 포제(醮祭)터와 포제단(醮祭壇)도 돌담으로 꾸몄다. 이처럼 당(또는 당굿), 포제가 거행되는 돌담 안의 신성공간은 마을 공동체의 동심결이 되기도 하여, 제주의 돌담은 돌로 쌓은 담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sup>33)</sup>

넷째, 제주 돌담은 자연과의 친연성이 높다. 돌담은 모두 제주의 화산석으로 만들었지만 지질적 환경의 차이로 지역마다 약간씩 다른 특성을 보인다. 즉 붉은 색 용암석이 많은 곳에서는 붉은 색 용암석으로 돌담을 만들고, 조면암이 풍부한 산방산 인근 지역에서는 조면암으로 산담을 만들고, 해안가에서는 바다의 둥근 먹돌을 이용해 돌담을 만든다. 때문에 제주의 풍토적 재료를 사용해 돌담을 만든다는 점에서 돌담은 자연과의 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처럼 돌담은 미학적·문화적 요소의 하나로서 제주만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오늘날 제주도내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돌담이 많이 사라지는 한편 변형되고 있다. 즉 집담이나 받담, 도로변 돌담이나 조경용 돌담 등을 현대식 재료인 블록으로 쌓기도 하고, 또 자연석 현무암이지만 돌을 가공한 바른층쌓기나 다이아몬드식쌓기 방식으로 쌓아올림으로써 전통적인 돌담 쌓기인 막쌓기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돌담 형식을 잃어간다는 것은 제주의 미적 요소를 잃어가는 과정이라 하겠다.

#### 4) 현황 및 보존 방안

제주의 돌담은 기능 및 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잠재적 가치와 실질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경제 발전 속에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2006년 제주도 하가리 설촌마을의 돌담을 포함해 전국에서 돌담이 아름다운 마을을 선정하여 등록문화재<sup>34)</sup>로 등록 예고하였다.

33) 고시홍, 「돌담」, 『濟州學』 제2호 겨울, 제주학연구소, 세림, 1998, 10~11쪽.

34) 등록문화재는 근대문화유산 가운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정, 관리하는 문화재로서 등록 주체는 문화재청장이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기존 문화재 지정 제도를 보완하고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여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애월읍 하가리 설촌마을의 돌담길은 제주도 특유의 현무암을 한 줄로 쌓은 발담과 돌담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농촌길로서 설촌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마을안 10km에 이르는 돌담길은 돌로만 만들어져 흔히 볼 수 있는 한반도의 토석담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제주도 전통의 통시<sup>35)</sup>가 있어 제주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36)</sup> 그러나 하가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하가리 돌담길은 등록이 유보되었다. 그리고 2007년 문화재청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다시 하가리 돌담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 했으나 역시 하가리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가리에는 국가중요민속자료 32호의 하나인 ‘갓동네말방아(연자매)’가 있다. 또한 5구의 초가도 제주도지정 민속자료 3-5, 3-8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문화재 지정 이후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적 피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참아야 했던 주민들로서는 마을 돌담길 10km가 문화재로 등록될 경우 마을 전체가 또 규제에 묶여 재산권 피해 역시 심각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sup>37)</sup>

이 문제는 우리나라 지정문화재 관리의 제도적 문제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박물관에 가지 않은 민속유물이나 가옥 등은 민중들의 생활 속에서 전승되어 온 유산이다. 즉 이것들은 사용해야 하고 부서지면 보수하면서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리·보존한다는 명목하에 문화유산을 박제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문화유산은 지속과 변화의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활용은 늘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유지보수 한 번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법령상의 규제만 받아들이라는 문화재 정책만으로는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즉 문화재 지정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제주의 돌담은 기능 및 특성상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희귀한 문화유산으

---

지정문화재와 달리 신고를 위주로 하며 지도·조연·권고 등 완화된 보호조치를 통하여, 소유자의 자발적인 보호노력을 이끌어 낸다. 또한 외관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부 수리를 허용,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세제와 수리에 대한 보조금도 지원한다.

35) 제주 전통 가옥에서 변소와 폐지막(돛통)이 함께 조성된 뒷간이다.

36) <애월읍 하가리 돌담길 문화재로 거듭난다>, 한라일보, 2006. 10. 25.

37) <골목길 다 묶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제주의 소리, 2006. 11. 15.

<하가리 돌담길 문화재 등록 어려울 듯>, 제주의 소리, 2006. 11. 17.

로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 중 하나이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1년의 영상자료로 분석된 지역의 총 돌담 연장길이는 남원지역의 38,450m로부터 성산지역의 48,642m로 약 10,000m의 지역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 지역은 40,430m로부터 44,449m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표1>생략) 이를 평균으로 합산하면 평방 1km당 돌담의 길이는 43,163m에 이른다. 반면 2005년 현장조사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4년 동안 훼손율이 약 5.44%에 이르며 돌담의 평방 1km당 길이는 40,796m로 2,637m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매년 평균 1.36%의 돌담 훼손이 가해지고 있고 현재 농촌의 급격한 도시화추세에 맞물린다면 몇 년 후 더욱 심각한 훼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8)</sup>

돌담이 훼손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연적인 요인보다 인위적 요인이 많다. 비닐하우스 등의 새로운 경작형태 및 도로 등의 시설물 개발과 기타 신축에 따른 훼손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돌담을 시멘트 등 다른 재료로 대체하면서 훼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6월 27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가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Jeju Volcanic Island and Lava Tubes)’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은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산으로 인류문명과 자연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이곳을 인간 작업의 소산물이나 인간과 자연의 공동 노력의 소산물로 역사적·심미적·민족학적·인류학적 관점에서 세계적 가치를 지닌 고고학적 장소로 인정해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 필리핀의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코르디레라스 다랭이논은 “2000년 동안 높은 산간에서 벼농사의 등고선 경작(산 중턱을 따라서

38) 최용복, 앞의 글, 56~63쪽.

고랑이나 논둑을 만들고 벼를 재배)해 오는 곳으로 이곳의 논둑을 이어 놓으면 2만km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구 반 바퀴 둘레와 같은 길이다. 또한 농업지식과 신성한 전통, 섬세한 사회적 균형의 결과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되었고 인간과 환경과의 정복과 보존의 조화로움이 표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으로 지정”<sup>39)</sup>하였다.

제주 밭담의 길이는 22,000km<sup>40)</sup>로 만리장성(4,000km)에 비해 5배이며, 다랭이논의 길이에 필적할 만하다. 그렇다면 제주의 돌담 역시 다랭이논과 비슷한 이유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제주 돌담은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된 생활유산이다. 생활유산에 대한 보존 대책은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물질적으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라이스테라스는 최근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최대 쌀 생산지였던 농업을 포기하고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필리핀 정부의 정책 때문에 라이스테라스는 농사를 짓는 삶의 터전이라기보다는 점점 관광 상품화되어 외관유지에 힘쓰고 있지만, 문화경관의 훼손은 가속화되고 있다.<sup>41)</sup> 이는 주민들의 삶이 전제되지 않은 보존이기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제주의 돌담은 그 돌담 안에 밭작물을 재배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삶<sup>42)</sup>이 전제되어야만 그 돌담유산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존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의 돌담은 화산섬인 제주에서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제주인의 생활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생활문화유산으로서 돌담 안에 밭작물을 재배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삶이 전제되어야만 그 돌담 유산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존 가능하다. 돌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했던 제주인의 생활 터전이 세계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관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농

39)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이트 <http://www.unesco.or.kr>

40) 고성보, 「제주밭담의 평가시스템 구축과 경관가치 평가」, 『제주돌담의 역사·문화적 고찰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2008. 5. 14.)』자료집, 19쪽.

41) 『W』, MBC, 2008. 4. 25.

42) 농업은 국가전략이어야 한다. 최근 곡물 가격 상승을 보더라도 식량산업이 국가를 지탱하는 제1요소임을 실감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농업은 계속되어야 할 중요 산업이고, 아울러 전통 계승의 방식이기도 하다.

촌의 삶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농촌의 삶이 지속되고 살아 있어야 제주의 문화 정체성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 문화 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산 배정도 필요하며 또한 마을 자치회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존가치가 높은 농촌경관자원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돌담 경관보전을 위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밭담의 경관보전 직불제 도입방안’<sup>43)</sup> 등 제도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2. 정낭

### 1) 기원

정낭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며, 이와 같이 신성시 되는 정낭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 하다. 하지만 긴 나무막대기를 가로로 걸쳐 놓아 대문 역할을 했던 것은 한라산의 방목중인 마소를 가두어 기르기 위한 ‘살채기’라는 ‘야외의 문’에서 비롯된 풍속인 것 같다.<sup>44)</sup> ‘살채기 문’은 마소의 통로를 가느다란 통나무 네댓 개로 여닫이문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정낭’은 방목 중인 마소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집의 입구에 정주목을 세우고 나무막대기를 걸쳐 놓은 것이다.

나무로 만들어진 정주목은 습기에 약하여 남아 있는 유물이 매우 귀하고, 현무암을 이용한 정주석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또한 밭에 설치하였던 ‘살채기’는 얼마간 남아 있으나, 초가에서 슬래브,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는 주거가 생기면서 정주목도 함께 사라진 상태이다.

제주도에는 말과 소를 방목해 온 전통이 있다.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소로부터 마당에 넘어 건조시키는 곡식이나 우영에 심은 채소를 보호하기 위해 정주목에 정낭을 걸쳐 놓았다.

43) 고성보, 앞의 글, 19쪽.

44) 북제주군문화공보실, 『내고장 傳統文化의 뿌리』, 1982, 161~163쪽.

‘정주목’과 ‘정낭’을 통틀어 ‘정’이라 한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정주목은 대개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지만,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래서 ‘정주목’이라고도 한다. 정주목은 대개 길이 90cm, 두께 10cm, 너비 18cm의 나무기둥에다 나무막대기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을 서너 개 뚫어 만든 것이다.

‘정낭’은 또 집주인과 방문객과의 암묵적인 약속 체계이기도 했다. 정낭 하나를 걸쳐 놓은 것은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다는 표시이고, 정낭 2개를 걸쳐 놓은 것은 주인이 밭이나 이웃 마을에 잠시 갔지만 아이들이 근처에 있다는 표시이다. 또 정낭 3개를 가로질러 놓은 것은 집 주인이 멀리 가서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 온다는 것을 뜻한다.

정낭의 신호로 마을 주민들은 정보 교환을 해온 셈이다. 방문을 삼가거나 오래 집을 비워 둘 경우 이웃들이 가축을 돌봐 줄 수 있는 신호 체계로서, 신뢰와 인심을 나눈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정주목에는 그 집의 수호신(守護神)의 성격을 지닌 신(神)으로 ‘올레직이’ 또는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라는 신격(神格)을 부여받는 민간신앙도 지켜지고 있다.

## 2) 명칭

‘정낭’의 명칭 문제이다. 제주 문화를 논하는 가운데 같은 것을 말하는 데도 서로 다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일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제주의 대문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로 정낭, 정살, 정주목, 정주석, 정주먹, 정주살, 정 등이 있다.

‘정주목’은 제주에서 집 입구인 ‘올레목’에 ‘정낭’(긴 나무막대)을 가로로 걸쳐 놓을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양쪽으로 세운 기둥이다. ‘정주목’이란 명칭은 넓고 곧은 직사각의 나무에 구멍을 내고 받침돌 위에 고정하여 올담 한 가장자리에 설치한 나무라는 한자어에서 온 듯하다. 그리고 ‘정주목’에 가로로 나무를 걸쳐 놓았는데 이를 ‘정낭’ 혹은 ‘정살’이라 한다. 그러나 ‘정주목’은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아 대신 돌로 이것을 만들었다. 이름은 ‘정주목’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정주석’이라 이름을 바꾼 것은 고물상들의 명명이었다고 한다.<sup>45)</sup> ‘정’은 ‘정주목’ 혹은 ‘정주석’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또한 정주먹은 정주목을 부르는 다

45)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3, 130~131쪽.

른 이름이다. ‘정주살’은 ‘정낭’을 다른 이름으로 ‘정살’이라 부르는데 이를 걸쳐 놓은 기둥이라는 점에서 ‘정주살’이라 부른다.

‘올래’ 입구 양쪽에 굵고 조금 넓은 나무 기둥을 세운다. 그 기둥에는 구멍이 두 개 이상 다섯 개까지 뚫려 있다. 이 기둥을 ‘정주목’이라 한다.<sup>46)</sup>

‘정주목’은 이 정낭을 걸쳐놓게 만든 구멍이 뚫린 나무기둥을 말한다.<sup>47)</sup>

마을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올래’라고 이른다. 그 곳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돌을 세운다. 앞의 것을 ‘올렛문’, 뒤의 것을 ‘주먹돌’ 또는 ‘정주목’이라고 이른다. ‘주먹돌’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구멍을 뚫어 만든 돌이라는 말이다.<sup>48)</sup>

가옥의 입구에 해당되는 올래 어귀에 설치되어 집 주인의 부재를 표시하는 기능과 우마의 출입을 방지하는 대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대문이 없는 집의 ‘올래’ 좌우에 설치하며 대부분 재료는 석재였으나 목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정주석에는 2~4개의 직경 10cm 내외의 구멍을 뚫고 거기에 장대같이 길다란 나무를 걸쳐 놓는다. (생략) 이 정주석은 제주 민간신앙에서 올래직이란 기능으로 신성하게 취급하기도 하였다.<sup>49)</sup>

제주에서 사람이 있고 없음을 나타내는 기둥을 ‘정주목’이라 하고, 그 기둥에 걸쳐 놓는 나무막대기를 ‘정낭’, 이 둘을 합쳐 ‘정’이라 하면 될 것이다. 대신 제주에서 대문 역할을 하던 것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낭’을 사용하면 될 것이다.

### 3) 기능 및 의미

제주에는 집안의 여러 곳을 관장하는 신에 대한 신앙이 있는데 이를 가신신앙이라 한다. 주로 대문에는 ‘일문전’, 곧 문전신(門前神)이 있었고, ‘상방(上房)’의 뒷문에는 뒷문신이 있었으며, 부엌인 ‘정지’에는 조왕신이 있었다. 또 ‘정주목’에는 주목정살지신이 있고, 놀왓<sup>50)</sup>에는 놀왓지신이 있었으며, 변소인 ‘통시’에는 칩

46) 현용준, 앞의 책, 130쪽.

47) 진성기, 『제주민속의 멋1』, 열화당, 1979, 72쪽.

48) 고광민,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61~62쪽.

49)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재(조사보고서)』, 1991, 344쪽.

도부인이라는 변소신이 있었다. 이외에도 울타리에는 올담내담지신이 있고, 집을 오방으로 지키는 오방토신이 있다. 집에서 굿을 할 때에는 이들 각 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유교식 조상 숭배 제의를 할 때에도 문전신과 조왕신에게는 따로 제의를 한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가신은 무속(巫俗)에서 유래했다. 그 유래는 무속신화인 <문전 본풀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문전 본풀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산고을 <남선비>와 여산고을 <여산부인>이 부부가 되어 아들 일곱 형제를 낳고 살았다. 집이 매우 가난하므로 부인의 권유에 따라 <남선비>는 배를 타고 쌀장사를 나갔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가는 것이 배는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닿았다. 그 고을의 간교한 여인 <노일제대 귀일의 딸>은 이 소식을 듣고 갖은 아양으로 <남선비>를 꼬여 부부가 되고, 가지고 간 돈을 다 털어먹고 남편을 학대한다. <남선비>는 형편없는 초막에서 겨죽을 먹으며 살다 보니 눈마저 어두워졌다.

기다리다 지친 본처 <여산부인>은 남편을 찾아 나섰다. 배는 오동나라에 닿아 남편을 찾아갔으나 남편은 본처를 알아보지 못했다. 본처는 쌀밥을 하여 남편에게 대접하고, 본처임을 알렸다. 이를 본 첩인 <귀일의 딸>은 시기 끝에 본처를 꼬여 목욕하러 가고는 물에 밀어 넣어 죽여 버리고, 본처인 양하여 남편과 같이 고향에 돌아왔다. 부모를 맞은 일곱 형제는 어머니가 아무래도 친어머니 같지가 않아 한다. 이를 눈치 챈 계모는 아들 일곱 형제를 죽여 버릴 흉계를 꾸며 배가 아파 죽겠다고 뒹굴며 남편더러 점 쳐 오라고 했다. 남편이 점을 치러 나가자, 지름길로 먼저 간 첩은 점쟁이인 체하고 앉아 아들 일곱 형제의 간을 내어 먹어야 낫겠다고 점괘를 내렸다. 아버지는 아들들의 간을 내려고 칼을 가는데, 푹푹하고 역력한 막내아들이 이를 알고, 그 칼로 형들의 간을 내어 오겠다고 형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멧돼지 새끼 간 여섯 개를 내어 와 계모에게 드렸다. 먹는 척하며 자리 밑으로 숨기는 계모를 문틈으로 본 막내아들은 그 간계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음모가 드러난 계모는 변소로 도망가 목매어 죽어 변소신이 되고, 체면 없는 아버지는 도망가다 <정낭>에 목 걸려 죽어 <정주목·정살지신>이 되었다. 아들들은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얻어다 죽은 어머니를 살리고 부역의 신 <조왕>으로 앉히고, 위로 다섯 형제는 집안을 五方에서 지키는 五方土神이 되고, 여섯째는 뒷문의 신인 <뒷문전>이 되고, 푹푹한 막내동생은 <상방>의 앞문신인 <일문전>이 되었다.<sup>51)</sup>

50) 탈곡하기 전의 농작물을 단으로 묶어 쌓아 두거나 탈곡하고 난 짚을 난가리로 썬 뒤 쌓아 놓은 것을 '눌'이라 한다. '눌왓'은 눌을 쌓기 위한 공간으로 '눌굽'이라고도 한다.

51)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61쪽.

제주도에는 거릿길에서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긴 골목이 있다. 이를 ‘올레<sup>52)</sup>’라고 한다. 올레에서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이 있거나 그 대신 구멍이 나 있는 돌을 세워두기도 했다. 그 문을 ‘올렛문’이라 했고, 문 대신 세워 두었던 돌기둥을 ‘정주목’, ‘정주먹’ 또는 ‘주먹돌’이라 했다. ‘주먹돌’은 주먹이 드나들 만큼 구멍을 뚫어 만든 돌이라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리고 그 구멍에 나무막대기를 걸쳐 두었는데 이는 마소의 출입을 방지함은 물론 집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표시해 주기도 했다. 그 나무막대기를 ‘정낭’ 또는 ‘정살’이라 했으며, 집안 식구들이 바깥에 나갈 때는 나무막대기를 걸어놓았다가 들어올 때는 내려놓았다. 즉 집안에 사람이 있고 없음을 ‘정낭’의 모양으로 표시하여 주인을 찾아간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마음 놓고 밖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주목에 정낭을 걸쳐 두었기 때문에 마소의 침범과 사람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 집주인은 마음 놓고 바깥일을 볼 수 있었다. 제주인들에게 있어 집을 지켜 주는 것은 오직 ‘정주목’과 ‘정낭’이다. 이러한 정주목은 그 집의 수호신적인 영험이 있어 민간신앙에서는 이를 ‘올레직이(入口守護神)’라 부르며, 무속신화(巫俗神話)에서는 ‘남선비의 녀’이라고 이른다.

남선비는 주먹직이(올레 양쪽의 「柱木직이」 神) 나무목신 들어사<sup>53)</sup>

아버님은 정살에 걸려 죽어시니 올레 주목 정살지신(柱木과 정살지신)으로 들어사<sup>54)</sup>

그리고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직도 조상의 제사를 지낸 후 ‘결명’<sup>55)</sup>이라 하

52) 올레는 제주도 전통 민가에서 특징적인 공간이다. 물론 타 지역에도 ‘고살’이라 불리는 좁은 골목길이 있으나 그 형태나 기능은 제주의 올레와는 전혀 다르다. 육지의 고살은 길이가 짧고 직진형태를 취하며, 주거 공간인 안채와 정면으로 마주보도록 되었다. 하지만 돌로 담을 쌓아 만든 제주의 올레는 길고 휘어지면서 안거리의 정면을 빗겨나가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길게 구부러진 곡선을 이용하여 바람의 풍속을 감소시킴으로써 자연환경으로부터 주택을 보호하였으며, 외부의 시선을 차단함과 동시에 독립된 내부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53)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201쪽.

54)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278쪽.

55) ‘결명’이란 제사가 끝난 뒤 선령에게 올렸던 제물을 송냥물에 조금씩 떼어 넣어 지붕이나 올레(진성기는 ‘오래’라고 함) 어귀담에 던지는 잡식(雜食)을 말한다. 그 결명은 그 제사에 선령의 뒤를 따라 왔던 균졸들의 뒹으로 대접하는 것으로 이튿날 까마귀가 와서 다 쪼아 먹고 만다. 그래서 제주도 민속에서는 으레 까마귀가 먹어야 하는 것으로 관념되고 있다. 그래서 이튿날 까마귀가 와서 결명을 먹지 않으면 제주 사람들

여 잡식(雜食)을 만들고 이 정주목에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sup>56)</sup>으로 보아 정낭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듯 하다.

#### 4) 문화사적 가치

정낭의 문화사적 가치를 실용적·과학적·정신사적·미학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제주 전통 가옥의 세거리, 네거리 집에는 내문(內門)이 별도로 있으나, 대부분의 가옥에는 문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주가 고온다습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나무로 만든 대문은 쉽게 썩었을 것이고, 또한 강한 바람으로 쉽게 부서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는 거릿길에서 집 입구까지 울레가 있으며 울레에는 돌담을 쌓았다. 그래서 만약 대문이 바람에 쓰러지고 부서진다면 울렛담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낭이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둘째, 정낭의 과학적 측면이다. 정낭이 세 개 중 하나만 걸쳐져 있으며 집주인이 없으나 이웃에 잠깐 외출중이나 곧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이며, 정낭이 두개 걸쳐져 있으면 이웃에 외출중이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정낭이 세 개 걸쳐져 있다면 먼 곳에 외출중이며, 정낭이 하나도 걸쳐져 있지 않으면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표시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정낭은 걸쳐진 나뭇가지에 따라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해 주는 표현 수단이다.

정주목에 걸쳐진 정낭의 개수 정낭 세 개는 디지털 2진 3비트로 정낭의 통신시스템이 디지털 통신의 효시가 된다고 보기도 한다.<sup>57)</sup> 즉 정낭 한 개가 걸쳐져 있으면 100, 두 개가 걸쳐져 있으면 101, 세 개가 걸쳐져 있으면 111, 하나도 걸쳐져 있지 않으면 000으로 상이한 정보를 외부에 나타낼 수 있다.

이처럼 정낭은 집 마당에 넣어놓은 곡식을 마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하기 위한 표현 수단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마소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정낭이 나중에는 집주인의 부재까지 표시하기 위한

은 매우 쉽해 한다고 한다. 선령이 제사를 받고 난 후 응감해 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해서이다. (진성기,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256쪽.)

56)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디딤돌, 2003, 146~147쪽.

57) 이문호, 「디지털 통신 효시로서의 정낭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10호, 한국통신학회, 1993.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정보 표현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정신사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사람의 집이라는 ‘신성공간’에 대한 믿음이 정낭에 나타나 있다. 제주에는 가신신앙이 있다. 이는 집의 울타리 안의 여러 곳을 관장하는 신이 집을 지켜준다고 믿는 것이다. 제주 전통 가옥의 구조상 정낭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정낭에 깃들여 있는 정주목신이 가장 먼저 외부인 혹은 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낭은 단순한 실용물이 아니라 신이 깃들여 있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낭’이 걸쳐져 있으면 신이 통행금지를 시키는 것이 되고 ‘정낭’이 내려져 있으면 출입을 허락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도둑도 이 신의 징벌이 두려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은 바로 정낭에 깃든 신이 집을 지켜 준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최근 한림읍 상명리는 ‘거지, 도둑, 대문 없는’ 삼무(三無)정신의 전통을 되살려 대문을 철거하였으며, 대문 대신에 정낭을 설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sup>58)</sup> 행정당국에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여 표창을 하는데, 표창을 받는 마을일수록 정낭에 대한 신앙이 두텁다고 한다. 이는 ‘올레직이’라 불리는 정주목신이 집을 지켜 주기 때문이라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즉 집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제주사람들의 열망이 정낭에 담겨 있으며 이는 바로 대문과 도둑이 없다는 제주의 인간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제주의 독특한 주거문화 요소 중 하나인 정낭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정낭과 같은 대문이 시베리아 사하공화국과 스리랑카 및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도 있음이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우리에게 문화사적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같은 황색인이며 검은 머리, 검은 눈에 풍습조차 같은 게 많다. 수호신 솟대와 장승, 서낭당과 **제주도식 정낭**, 그리고 어느 아이들이나 몽고반점이 있다.<sup>59)</sup>

58) <우리 마을엔 대문이 없어요>, 제주일보, 2007. 6. 27.

59) 주장현, 「시베리아 레나강과 사하족」, 『세계의 킬트 여행지』, 경향신문, 2007. 3. 15.

사하족은 우리와 같은 몽골리언으로 알타이어군의 동북 터키어계이다. 사하족의 뿌리는 고대 터키족이지만 일찍이 분리되어 몽골계 브리야트족이 사는 바이칼 호숫가에 살게 되었다. 사하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로부터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광활한 초원의 끊임없는 유목적 세계를 알아야 한다. 즉 이들은 유목 문화권으로서 과거 제주와 같이 말을 목축하였다.

또한 스리랑카의 타밀지역 역시 정낭과 비슷한 민가의 대문이 있다. 양쪽에 통나무를 세우고 가로로 나무막대기를 걸쳐 놓은 모습이 정낭과 비슷하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대만에도 정낭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다.<sup>60)</sup> 그렇다면 정낭은 제주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북방문화 및 남방문화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방문화의 해양 교류에 대한 고찰이 계속 이루어질 때 제주 문화의 속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쿠로시오 해류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가 절실하다.

### 3. 돌하르방

돌하르방은 1991년 동서냉전의 벽을 허문 제주 한·소정상회담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전달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후에는 장쩌민, 리펑, 클린턴, 하시모토 등 외국 정상들도 제주의 돌하르방을 품에 안고 돌아갔고 중국, 일본, 캐나다, 미국에는 돌하르방을 세웠다.<sup>61)</sup>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은 제주문화는 물론 한국문화를 알리는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제주의 주현성(州縣城) 석상인 돌하르방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현용준의 「제주석상 ‘우석목’考」<sup>62)</sup>가 있다. 이는 돌하르방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예술품

60) KBS, 『역사기행』, 2007. 2. 25.

61) 2002년에는 중국 래주시 광장에, 2003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로사시 청사 앞에 북제주군이 기증한 돌하르방 2기가 각각 세워졌다. 또한 캐나다 밴쿠버 워터프론트 공원과 미국 애리조나주 세도나시 한국민속문화촌에도 돌하르방이 세워졌다. 하지만 돌하르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안내판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낯선 이방인들에게 단지 눈요기의 대상으로 밖에 인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62)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저자가 쓴 제주도 무속과 민속문화에 관한 글을 모아 엮어 만든 책이다. 「

이라는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관심 밖이었을 때 최초로 이루어진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즉 돌하르방에 관한 초기 연구로서 자료가 거의 없는 현재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로 매우 귀중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제주목이었던 제주시에 있는 돌하르방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정의고을 및 대정고을에까지 미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 후 김영돈에 의해 돌하르방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돌하르방에 관한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비슷하다. 최근에는 돌하르방 기원설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연구해야 할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 역시 돌하르방에 관한 현전 자료를 토대로 하고 선학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기원, 원위치, 명칭, 기능을 제시하고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 1) 기원 및 특징

돌하르방의 기원 및 유래에 관한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관련학자들이 북방·남방문화 기원설, 본토 장승의 유입설, 제주도 자생설이라는 여러 견해들을 추측으로만 논하고 있다.

이 석상들은 과거 주현성(州縣城) 소재지인 제주시가, 대정읍 보성·인성·안성, 표선면 성읍 세 군데에 모두 47기가 남겨져 있으며, 이 중 제주시의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담수계(淡水契)에서 펴낸 『耽羅誌』에 따르면 돌하르방을 ‘웅중석’이라 하고 제주읍성의 돌하르방은 1754년(영조 30년) 김몽규 목사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翁仲石-濟州邑城 東西南 3門外에 在하였고 4087년 甲戌 英宗<sup>63)</sup> 30年에 牧使 金夢奎가 創建한 바인데 3門 毀撤에 因하여 2座는 觀德亭 前 2座는 三姓祠 入口에 移置되었다.<sup>64)</sup>

防禦使 金夢奎-英祖 28年 壬申 2月에 到任하고 越 2年 甲戌 10月에 誕日에 箋文陳賀未及事로 因하여 巡營으로부터 杖罷하다. 翁仲石을 三門城外에 建하고 運壽堂과 觀德亭

---

제주석상 ‘우석목’考, 『제주도』 제8호(제주도, 1963)에 실렸던 논문으로 이 책에 수록되었다.

63) ‘英祖’의 오기로 보인다.

64) 淡水契編, 증보<耽羅誌>, 제주문화원, 2004, 86쪽.

을 重創하다. 立碑<sup>65)</sup>

『탐라기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甲戌 30年 清乾隆 19年 金夢奎設 翁仲石於城門外

물론 이 기록만으로는 돌하르방이 18세기 김몽규 목사에 의해 비로소 제주에 세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현용준은 많은 석상을 방어사 김몽규가 손수 조각한 것은 아닐 것이고, 또한 수개월 사이에 완성할 수도 없으므로 위 기록에만 근거해 돌하르방 형성 시기를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석의 구조를 토대로 추측한다면 조선조 영조 30년이라는 것이다.<sup>66)</sup> 즉 성을 쌓은 무렵에는 제주 전통 민가의 풍습을 따라 대문을 대신하는 정낭을 성문에 걸쳐 성문을 대신했을 것이라고 한다. 돌하르방은 성문 밖에 쌍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돌하르방 중 기석이 남아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한쪽은 口形의 홈이, 다른 한쪽은 기역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의 홈이 패여 있는데 이는 정낭을 걸쳤던 흔적이라고 한다.<sup>67)</sup> 즉 성문 양쪽에 돌하르방이 세워지기 전에는 정주목을 세우고 정낭을 걸친 시설이 되어 있었다가 성문이 생기고 돌하르방이 세워진 다음에도 그 기능만은 남아 있어서 기석에 홈이 생겼으리라고 보는 것이다.<sup>68)</sup>

또한 돌하르방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온 김영돈<sup>69)</sup>에 따르면 그것의 유래는 문헌 자료 및 전설 등 구비 전승되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18세기에 세워졌다는 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담수계편에서 펴낸 『탐라지』에 따르면, 돌하르방을 옹중석(翁仲石)이라 하고 제주읍성

65) 淡水契編, 앞의 책, 405쪽.

66)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앞의 책, 257쪽.

67) 돌하르방의 기석(基石)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다루었다.

68) 현용준, 위의 글, 259~260쪽.

69) 김영돈, 「제주도의 석상·석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1968.

-----,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 5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33~47쪽.

-----, 「돌하르방」,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219~253쪽.

-----, 「돌하르방」,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99, 73~79쪽.

-----, 「돌하르방」,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212~241쪽.

의 돌하르방은 1754년(영조 30년) 김몽규 목사가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만으로는 1754년에 돌하르방이 비로소 제주도에 세워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행정구역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으로 나뉜 것이 1416년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각각 성을 쌓았는데, 3백여 년간 성문에 아무런 시설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sup>70)</sup>

따라서 정의 축조 연대와 관련지어 보면 제주 석상의 유래는 15세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 있다.

진성기 역시 단편적인 기록만으로는 돌하르방의 건립동기, 건립시기 및 명칭 등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만들어진 모양이나 민속적·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가까운 연대를 추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담수계(淡水契)편 『탐라지(耽羅誌)』나 김석익(金錫翼)의 『탐라기년(耽羅紀年)』에 김몽규 목사가 창건했다는 단편적인 기록이 보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고 달리 뚜렷한 증거(典據)를 찾기도 어려운터이지만, 그 만들어진 모양이나 이와 관계되는 민속적·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가까운 연대를 추정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선 이 돌하르방은 반드시 성곽(城郭)과 관계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주시와 보성리(保城里) 성곽의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하자.<sup>71)</sup>

그러한 이유에서 고정중(高禎鍾)의 『제주도편람(濟州道便覽)』 ‘제주성곽조<sup>72)</sup>’와 대정고을의 성곽의 연혁<sup>73)</sup>을 살피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기록만으로는 돌하르방의 제작 연대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반드시 성문 밖에 수호신격으로 세워졌음을 생각한다면 대정고을懸의 설치시기를 알면 대략적으로 제작 연대를 추측할

70) 김영돈, 「돌하르방」, 『제주성읍마을』, 78쪽.

71) 진성기, 『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210쪽.

72) 본성(本城)은 축성(築城)의 연대가 불명하나 축성의 제도와 설비의 완성이 조선(朝鮮)내 경성(京城)·평양(平壤)·개성(開城)·수원(水原) 등 성을 제외한 외에는 어떤 지방에 비할지라도 별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원래 주위가 5,489척, 높이 11척이러니, 명종(明宗) 21년(1566) 병인(丙寅) 봄에 목사(牧使) 곽홀(郭屹)이 성중에 음료수가 없음과 방어상 불리한 점을 감(感)하여 동성(東城)을 오늘의 위치에 퇴축(退築)한 바 둘레가 7,340여 척이 되었고, 그 후 명종(明宗) 32년 기해(己亥) 겨울에 목사 성윤문(成允文)이 성에 높이 5척을 가축(加築)하는 동시에 격대포루(擊臺砲樓) 20여 곳과 남북구홍문(南北口虹門)을 축조한다.

정조(正祖) 4년(1780) 경자(庚子)에 목사 김영수(金永綏)가 성중에 몰수지환(沒水之患)이 있는 것을 염려하여 간성(間城)을 축(築)한다.(진성기, 위의 책, 210~211쪽.)

73) 『세종실록(世宗實錄)』 지리지(地理志) 진라도 대정현조에는 “...本朝 太宗 丙申始 置縣監... 邑石城周圍 1179步許 烽火四處...”(진성기, 앞의 책, 211쪽.)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탐라기년』과 담수계편 『탐라지』, 고정종의 『제주도편람』 ‘제주성곽조’, 대정고을 성곽연혁 기록만으로는 돌하르방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탐라지』의 서술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분석을 시도하여 돌하르방의 기원에 대한 문제에 결론을 내리고 있다.

첫째 제주도에선 고려 충렬왕(忠烈王) 2년(1282)에 몽고인이 목장(牧場)을 위하여 점거(占據)한 후 쫓겨가기까지 97년간의 통치를 통하여 본도민과 몽고인과의 사이에는 풍속을 비롯하여 언어와 혼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 둘째 이와 비슷하거나 다른 유형의 인석상(人石像)은 육지를 비롯한 남태평양상에 위치한 여러 도서지방에도 분포되어 있다는 점, 셋째로, 조선조 태종(太宗)때 대정에서는 벌써 돌할으방과 관계 깊은 성곽을 쌓고 현(縣)을 설치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더라도, 이 돌할으방은 1754년 김몽규 목사가 창건했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sup>74)</sup>

특히 그는 ‘돌하르방’이라고 부르면서, ‘우성목’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이 석상이 원래 나무로 만들었다고 추측한다. 즉 ‘무성목’, ‘우성목’이라는 이름에서 ‘목’이 한자 ‘木’에서 온 것이라면 이 석상은 원래 목상(木像)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나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서 신앙했던 옛 사람들의 ‘목우(木偶)’ 신앙을 생각해 볼 때, ‘우성목’은 이런 이유에서 온 것이라 추측하는 것이다. 즉 ‘돌하르방’이 원래는 목우(木偶)에서 발전하여 마침내 독특한 석상으로 발전하였던 것이 아닌지 추측하면서 ‘돌하르방’이 김몽규 목사 한 사람에 의해 세워졌던 것이 아니며 예로부터 오는 습속을 석화(石化)하여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돌하르방’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연대를 고려나 그 이전으로 소급하여 볼 수 있고 원초주민들의 신앙에서 유래된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성문에 채용되기 이전에는 훨씬 자연스러운 관점에서 적소에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설명하고 있다.<sup>75)</sup>

돌하르방은 제주도 행정 구역이 삼분(三分)하였던 약 500년(1416~1914년)동안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도읍지의 동·서·남 성문 옹성구비에 쌍쌍이 세워졌었

74) 진성기, 위의 책, 212~213쪽.

75) 진성기, 「제주도 돌하르방」, 『민학2』, 민학회, 1973, 106~107쪽.

다.76) 제주목에는 23기77), 대정현과 정의현에 각각 12기로 모두 47기가 남아 있다.78) 이들 돌하르방의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부리부리한 큰 눈에 큼지막한 코, 머리에는 병거지를 썼고 두 손은 배에 나란히 해서 위엄 있게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 고을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습 및 크기도 다르다. 제주목의 것이 가장 커서 평균 신장 181.6cm, 정의현의 것은 141.4cm, 대정현의 것은 136.2cm이다.79) 삼현의 돌하르방의 크기가 다른 것은 목(牧)과 현(縣)의 차이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80)

현재 남아 있는 돌하르방은 모두 병거지를 쓰고 있으나, 그 모양 역시 각양각색이다. 특히 제주시청 현관 우측과 제주대학교 박물관 입구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병거지 표현이 아주 정교하게 주름까지 조각되었다. 전체적으로 흰칠한 이마에 통방울눈을 하고 있고 큼직한 자루병만한 코는 아주 세밀하고 해부학적으로 조각되었다. 어깨는 어느 한쪽을 올리거나 내리게 하여 생동감을 주고 있고 양손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가슴에 얹혀 있어 긴장감을 주고 있다. 대부분 입을 한일(一)자로 꼭 다물고 있어 침묵을 지키는 듯 매우 위엄성이 있다.81)

대정현의 돌하르방은 관모의 형태는 병거지라기보다는 나무바가지를 뒤집어 쓴 모습이다. 기석은 전혀 없고, 눈이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되었는데, 모두 눈을 불거지게 양각하고 이중으로 선을 넣어 마치 안경을 쓴 듯한 느낌을 주며 아주

76) 김영돈은 돌하르방이 三州縣城 성문 입구에 세워졌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1960년대 말까지도 제주시 동문의 돌하르방이 원위치에 놓여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점, 둘째, 제주시 三門城 밖에 세워진 석상을 三姓祠나 관덕정으로 옮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점(제주시 용담동 故高昌球 씨 등), 셋째, 대정과 정의 고을의 돌하르방이 지금 놓인 자리가 동·서·남 성문 입구라는 점, 넷째, 담수계 편 『탐라지』에 “翁仲石~濟州邑城 東西南 三門外에 在하였고…”라는 기록이 보인다는 점이다.(김영돈, 『제주도 제주사람』, 216쪽: 「제주·대정·정의 州縣城 석상」, 37쪽.)

77) 돌하르방에 관한 초기 연구에 따르면 제주목의 돌하르방은 모두 25기이다. “조선조 世宗 때 창건했다는 觀德亭 앞에 4座, 그 뒤에 2座, 三姓始祖 湧出地라는 三姓祠 앞길(舊 濟州女中·高 앞)에 2座, 三姓祠 입구 길에 4座, 南門路 만수당약방 앞 우물통 골목에 1座, 동문로터리 명승호텔 앞(前 三泉書堂 북측 입구와 남측 입구)에 도합 4座(그 중 2座는 제주대학교 교정으로 옮겼음), 東門路 현 감리교회 뒤편 小路에 8座 도합 25座가 있었다.”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앞의 책, 254쪽.)

78) 돌하르방의 전체 수가 47기였는지 의심스럽다. 濟州牧 東·西·南門 웅성구비에 각각 4기씩 마주하여 8기씩 서 있었다. 그리고 大靜縣·旌義縣 東·西·南門 입구에 2기씩 마주하여 4기씩 각각 12기가 서 있었다.

79) 김영돈,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 5집, 39쪽.

80) 김봉욱,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164쪽.

81) 양용방, 「제주도 돌하르방의 미적특성 연구」, 제주대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1994, 49쪽.

해학적으로 조각했다. 보성리 사무소 입구 좌측과 인성리 노변 우측에 있는 돌하르방은 다른 돌하르방의 손의 표현과는 달리 각지 끼듯이 마주 놓고 있는 형태가 아주 특이하다. 귀의 모양도 활처럼 곡선을 이루고 있는 것도 대정의 돌하르방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인 형상에서 우리나라는 느낌은 소박하고 친밀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다.<sup>82)</sup>

정의현 즉 성읍의 돌하르방은 지금도 12기 모두가 원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유일한 곳이다. 기석이 있는 것도 있는데 모두 아무런 흠이 없어 태석(台石)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코의 길이가 얼굴 전체 길이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기다란 매부리코로 조각되었고 대부분이 눈초리가 위로 치켜 올라 있어 매서운 인상을 하고 있으나 손의 표현에서 다소 어색함을 나타내고 있다. 가슴 중앙에서 상·하로 교차시킨 두 손은 어린이 손 같아 보이지만 주민을 끝까지 보살피겠다는 의지가 역연하게 보여 수호신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음을 알 수가 있다.<sup>83)</sup>

이처럼 돌하르방은 모습과 크기에서 모두 다르며, 또한 돌하르방 중 일부는 기석이 있는 것이 있어 특징적이다.

즉 원상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둥근 모양의 基石 앞면 중앙에 各組마다 한쪽은 口形의 구멍이 파져 있고, 한쪽은 기역자를 뒤집은 형의 홈이 파져 있다. (중략) 口形의 구멍이 약 18cm의 正方形이고, 기역자를 뒤집은 홈의 폭이 평균 19cm로 가로 길이가 45cm로서 기석의 변두리까지 파져 있고, 세로 길이는 13cm로 지면 위까지 가서 끊어져 있는데, 양쪽 모두 14cm 깊이로 파져 있다. 이 구조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필시 기다란 굵은 나무 한쪽 끝을 먼저 口形의 구멍에 찌르고, 다른 한쪽 끝을 기역자를 뒤집은 형의 홈에 대어 왼쪽으로 밀어 넣고 세로 홈에 다다르면 밑으로 눌러 밀어서 고정시킨 것이라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sup>84)</sup>

만약 이것이 가로로 나무를 걸쳤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소의 침입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던 ‘정낭’과 비슷한 반면, 정낭이 여러 개의 나무를 위아래로 걸쳐 놓음으로써 출입 차단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면에 닿을 정

82) 양용방, 앞의 글, 49쪽.

83) 양용방, 위의 글, 같은 쪽.

84) 현용준, 「제주석상 ‘우석목(돌하르방)’考, 앞의 책, 250~265쪽.

도로 나무 하나만 걸쳐 놓는 것이어서 차단 기능이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도 제시한다. 그러면서 본래는 이것이 정낭과 같이 실용적인 역할을 하던 것이었지만 뒤에 그 잔재만 남은 것이라 보며 다음과 같이 추단하고 있다.

제주성의 경우로 보면 원래 현 二徒 2洞(陳城洞=무근성)에 좁다란 옛 성이 있었는데, 이를 옮겨 넓게 쌓아 올린 것이 현재의 城址다. 생각건대, 陳城洞의 옛 성인 때나 새로운 성의 초기에는 정식 성문이 없었고, 제주의 풍속대로 나무나 돌로 된 <정주목>을 세우고 <정낭>을 걸쳐 막아 문 대신 했으리라는 것이다. (중략) 이렇게 <정낭>으로 차단해 오다가 정식 성문이 만들어져 <정낭>은 사실상 큰 작용은 없게 되었으나 관습적으로 양자를 병용하던 기간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다가 <정낭>의 실용적 기능이 없음을 재인식했을 때, 石製의 <정주목>을 石像 우석목으로 조각하여 놓았을 것이고, 그 시기가 조선조 英祖 30년이라는 것이다. (중략) 이 石像이 <정주목>의 발전적 변형이라면 성문 앞 좌우에 부리부리한 눈으로 무서우리만큼 노려보게 조각하여 세운 것은 바로 이 <정주목신>의 彫像이요, 그 基石에 기억자를 뒤집은 형과 口형이 파진 것은 <정낭>을 꽂았던 잔재이며, 비실용적 나무를 가로로 꽂았던 것은 <정낭>을 걸치면 그 수호신이 통행금지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통행을 금지하는 標識로 되었던 것이다.<sup>85)</sup>

즉 주현성(州縣城)을 축성한 초기에는 정식 성문이 없었지만, 제주 전통 민가의 풍속에 따라 대문을 대신하는 ‘정낭’과 비슷한 시설이 있다가 성문이 생기고 석상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이는 석상의 기석 구조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주의 민속적 신앙의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낭에는 출입금지표시의 기능도 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제주인들은 정낭을 걸쳐 놓으면 마소는 물론 외부인 심지어 도둑들까지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돌하르방 기석의 가로지른 나무도 이러한 민속적 관습의 잔존으로 통행을 알리는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2) 명칭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돌하르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불리기 이전까지 우석목(偶石木), 무석목(無石木), 벽수머리, 돌하르방, 돌영감, 수문장(守門將), 장군석(將軍石), 동자석(童子石), 옹중석(翁仲石), 망주석(望柱石) 등 재

85) 현용준, 앞의 글, 259~260쪽.

래의 명칭은 다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목·대정현·정의현에서 불리는 명칭이 각기 달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것을 1971년 제주도 지방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하면서 ‘돌하르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으나 이는 재래의 명칭은 아니다.

‘우석목’<sup>86)</sup>은 가장 많이 통용되던 재래 명칭으로 현용준은 이것이 고유 명칭이었을 것이라 추측한다. 이를 한자어 ‘우석(偶石)’과 ‘목(木)’의 합성으로 보고 석제(石製)인 우상(偶像)에 ‘木’이 붙은 이유를 설명한다. 즉 이 석상의 본래적 구조나 기능이 ‘정주목’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이라 추단하고 그러던 것이 후에 석상으로 만들게 되고 이를 ‘우석(偶石)’이라 불렀겠으나 본래의 ‘정주목’의 의미를 표현하려는 언중심리 때문에 ‘목’을 ‘우석(偶石)’에 붙였을 것<sup>87)</sup>이라 한다.

‘무석목’은 대정·정의 고을에서, 벽수머리는 정의 고을에서만 쓰이던 이름으로 ‘무석목’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이름이다. 또한 돌하르방은 어디서나 널리 통용되는 명칭이지만 해방 후에 생겨난 속칭에 불과하다. 돌영감은 하르방과 비슷한 속칭으로 대정읍 보성·인성·안성에서 가끔 쓰였으며, 수문장은 가끔 쓰는 명칭으로 석상의 기능으로 차용한 이름인 듯하다. 장군석은 대정 일부 지역에서 호칭되었던 말로서 묘소의 석물무석인(石物武石人)의 별칭을 인용한 것이므로 일반성은 전혀 없다. 또한, 동자석과 망주석은 제주시에서 묘소의 동자석 및 망주석과 비슷한데서 인용한 이름으로 가끔 쓰일 뿐이다. 웅중석은 『탐라지(耽羅誌)』 등 문헌에 가끔 나타나며 유학자들 사이에서만 더러 쓰일 뿐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용되지는 않았던 듯하다.<sup>88)</sup>

따라서 제주 삼주현성(三州縣城)의 석상에 관한 가장 흔한 명칭은 ‘우석목’, ‘무석목’, ‘벽수머리’, ‘돌하르방’이다. ‘돌하르방’이란 제주도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비롯한 민간에서 쓰이는 명칭으로 ‘돌할아버지’의 제주방언이다. 돌을 깎아 만든 사

86) ‘돌하르방’의 다른 명칭에 대해 ‘우석목’, ‘우성목’, ‘무석목’, ‘무성목’을 말하기도 한다. 진성기(『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2003, 208쪽.)는 ‘우성목’이라 부르는 것은 이 석인상을 원래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나무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세워 신앙했던 옛 사람들의 ‘목우(木偶)’신앙에서 연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성목’으로 불리는 것은 ‘無聲木’이라는 한자어로 풀이하여 볼 수 있다는 데서 이는 그 소리가 있고 없음을 두고 명명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그러나 ‘우성목’과 ‘무성목’은 ‘우석목’과 ‘무석목’을 발음의 차이로 생겨난 것일 뿐이다.

87) 현용준, 앞의 글, 253~254쪽.

88) 김영돈,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 5집, 34~35쪽.  
현용준, 위의 글, 252쪽.

람의 형상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속칭이라 볼 수 있다. 해방 후 어린이들 사이에서 쓰이던 것이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퍼진 것으로 ‘돌영감’, ‘영감’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 중 ‘벽수머리’라는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벽수’는 영호남 지방에서 ‘장승’을 이르던 말이므로 ‘벽수머리’라는 명칭은 ‘돌하르방’의 유래를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즉 북방문화 기원설, 남방문화 기원설, 제주자생설 등 돌하르방의 유래에 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돌하르방을 한반도 본토의 ‘장승’이 유입, 변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를 ‘벽수머리’라는 명칭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 3) 기능

예로부터 인간은 사물이나 어떠한 형태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여 변형된 상징을 만들어 종교나 예술로 표현하고자 했다. 원시 고대사회에서는 다듬지 않은 자연석에는 영혼이나 여러 신들이 거하고 있다고 믿고 비석이나 경계비로 혹은 종교적인 외경심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인류가 돌에서 느끼는 영혼이나 영성을 형태로 나타내고자 애쓴 흔적을 선사시대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형태가 인간의 얼굴 모습의 윤곽을 하고 있는 고대의 선돌, 그리스의 경계비에서 발전된 형태의 경계주(境界柱), 그 밖에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는 구석기 시대의 우상(偶像)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up>89)</sup>

원시종교 혹은 토속신앙에 있어서 자연석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돌은 대지가 만들어낸 것으로서 영속적인 시간성과 부패하지 않는 힘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러한 암석숭배는 고대로부터 계승되어 오는 관습으로 초자연적 영역과의 관계에서 당대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과 기능을 가졌던 것이다. 이렇게 자연석도 인간의 신앙적 주술대상물로 삼아 신성시했다.

김영돈은 주현성(州縣城) 성문 바깥에 세워진 이유를 해명할만한 문헌기록이 없기 때문에 삼주현성내(三州縣城內) 원로들의 전승에 의지해 그 기능을 다음과 같이 종합 설명하고 있다.

89) Aniela Jaffe, 이희숙譯, 『美術과 象徵』, 열화당, 1989, 15~17쪽.

첫째, 수호신적 기능으로서 마치 성문을 수호하듯 주현성(州縣城) 소재지의 무사(無事)를 엄숙히 지키는 기능을 지녔다는 것이다. 문지기 노릇을 한다든가 수위·방어의 노릇을 한다든가, 묘소의 동자석과 같은 기능을 한다든가, 수호신격이라든가 하는 견해는 모두 돌하르방이 수호신적 기능이 있음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주술종교적 기능으로서 흔히 ‘거오기<sup>90)</sup>’라 불리는 방사탑과 비슷한 기능이 있어 방사(防邪)·축사(逐邪)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성읍리가 어떠한 전란의 피해도 입은 일이 없다는 점<sup>91)</sup>과 대정현성에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석상의 코를 쪼아 이 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속신, 대정현성 북문에 원래 석상이 있었는데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겼더니 성내(城內)에 도둑이 많아졌다는 말도 있다. 이러한 여러 이야기는 석상에 주술종교적 기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셋째, 위치 표시 및 금표(禁標)로서의 기능이 있다. 석상은 주현성(州縣城) 성곽의 동서남북 성문 밖마다 웅성이 굽이쳐 나간 자리 양옆에 마주하게 세움으로써 외지인들에게 주현성(州縣城)에 다다랐음을 말해주는 경계 표시적 기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주현성(州縣城) 석상이 본토의 ‘장승’과 기능이 유사함을 말해 주며, 다른 이유와 함께 ‘장승’이 제주도에도 유입하여 삼주현성(三州縣城) 석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sup>92)</sup>

현용준은 첫째, 석상이 성문 밖 가까운 지점에서부터 세워졌다는 점은 외래자(外來者)에게 주현성(州縣城)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경계표적 기능이 있고, 둘째, 성문의 굽이도는 길목 좌우에 부리부리한 눈초리로 마주보게 세워 놓은 것은 관가의 위엄성을 보이면서 출입자에게는 두려움을 주어 성문을 지키는 경계 수호적 기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정현성 북문에 석상을 치웠더니 도둑이 많아졌다는 말이 있어 그 석상의 형상에서 우려난 위엄성에서 기능하는 수호를 넘어 초자연적인 수호 기능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민들은 이 석상이 흉기(凶氣)나 도적을 방어하는 초자연적 위력을 가져 주술적 기능을 발휘한다고 신앙

90) 풍수지리적 사기(邪氣)를 막기 위해 돌무더기를 둥그렇게 쌓아올린 다음 나무로 새모양을 만들어 꼭대기에 엮어 만든 것이다.

91) 성읍이 원래 ‘兵火不入之地’라는 이유와 함께 이 석상이 세워져 있음으로 인해 사기(邪氣)를 방어·축출하기 때문이며, 또한 성읍리 가까이까지 만연하던 호열자 같은 질병도 침범했던 일이 없었기 때문이라 믿고 있다.

92) 김영돈, 앞의 글, 42~43쪽.

하였음<sup>93)</sup>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돌하르방의 기능을 크게 수호신적 기능, 주술·종교의 기능, 위치 표시 및 금표(禁標)의 기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삼읍의 도읍지 입구에 쌍쌍이 마주하여 서 있음으로써 도읍지 내는 물론 주민들의 평안과 융성을 지켜 주며 기원하는 수호신의 기능을 지닌다고 하겠다. 문지기 노릇을 한다든가 무덤 앞에 세워진 동자석의 기능을 한다든가 하는 말들을 주민들이 강조한다. 이는 곧 수호신의 기능으로 요약된다. 둘째는 주술·종교의 기능은 방사탑과 같은 기능 또는 축사(逐邪)의 기능으로서 난리와 악질 등의 사기(邪氣) 방어 기능, 잉태기원의 기능도 있었다고 한다. 셋째 위치 표시 및 금표의 기능이다. 돌하르방이 도읍지의 성문 앞에 세워짐으로써 도읍지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성 바깥사람들이 성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일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처럼 돌하르방의 주요 기능은 한반도 장승의 기능<sup>94)</sup>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 4) 문화사적 가치

돌하르방은 과거 지역 경계 표시 및 수호신적, 주술적 기능이 있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사도 흐르고 변하지만 돌하르방의 기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돌하르방은 도내 초등학교 정문은 물론 아파트와 관공서 입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는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오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기원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다.

돌하르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제주의 자연석 현무암을 이용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형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돌하르방의 큰 코, 볼록 돋은 觀骨筋(관골근), 무표정한 頰筋(협근), 나지막한 입술에 일자로 썬 입, 좁고 무시한 듯한 頰部(협부)에서 눈 가까이에 길게 매달린 귀, 전체의 안면이 가우똥하게 약간 쳐들고, 미소마저 담백 담은 모습은 볼수록 보는 사람에게 썩 익살스런 표정을 느끼게 하는 것은 제주석상의 인상이고,

93)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258쪽.

94) 아까마쓰 등(赤松智誠, 秋葉隆)의 『조선 무속의 연구(朝鮮巫俗の研究)下』에 따르면 장승의 기능을 이정표로서의 기능, 금지표로서의 기능, 경계표로서의 기능, 주술종교적 기능의 네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고르지 않은 어깨에 동세를 담아 할 터이면 해보라는 듯 거드름 피우는 자세의 왼쪽이나 오른쪽 어깨를 치켜 올린 태도는 또한 이 석상이 지닌 멋<sup>95)</sup>이라 할 수 있다.

조형적 특징으로는 제주도 특유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었으나 어느 지역 장승보다도 양식화한 일정한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것은 간결한 형태 요약을 통한 단순미와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함이 있다. 즉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만든 석상들은 세세하게 조각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감한 생략과 변형을 통한 투박함을 보여 준다. 돌하르방의 특 튀어나온 왕방울 같은 눈망울은 부리부리하고, 한편으로는 바보온달처럼 어리석기도 하다. 치켜 올라간 부릅뜬 눈 꼬리도 웃을 듯 말 듯 한 모습이며 주먹코는 얼굴 전체의 반을 차지하며 우람하게 솟은 것이 익살스럽고 해학적<sup>96)</sup>이다. 또한 제약을 받지 않아 형태가 다양하다. 현재 전하는 석상들은 감투를 쓰고 있고 두 손을 배 위에 살짝 얹는 등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지만 삼주현성(三州縣城) 각 고을의 석상들의 모습과 크기는 모두 다르다.

민속학적으로 돌하르방은 역사적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응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진취적인 인간상을 대변해 주는 수호신으로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읍성을 지키는 수호신적 기능, 주술적 기능면에서 생활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돌하르방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관리 및 보존에는 소홀하다. 문화재 보호의 제1원칙은 현상불변경원칙이라고 한 김영돈의 주장은 타당하다. 소중한 문화재는 원위치에 그대로 두어야 형태와 기능을 후세에까지 제대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서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sup>97)</sup> 그러나 돌하르방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돌하르방을 나눠 가져가는데 관공서가 앞장섰다. 현재 현존하는 돌하르방은 모두 47기이다. 이 중 제주목의 2기는 국립민속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성읍에는 12기 모두 원 위치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제주시와 대정의 돌하르방들은 대부분 다른 곳으로 옮겨져

95) 문기선, 「돌하르방의 美術解剖學적 研究」, 『논문집』 13집, 제주대학교, 1981.

96) 양용방, 앞의 글, 18쪽.

97)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223쪽.

있다.

그러면서 돌하르방은 대도로변에 아무런 보호 시설 없이 세워져 있어 훼손의 우려가 있다. 또한 돌하르방 중 일부는 이미 훼손된 흔적이 있으며, 시멘트 등으로 간단히 보수한 것도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도 지정기념물로 지정된 돌하르방의 현재 위치가 당초 설치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옮겨져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퇴색됨은 물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으므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기사는 도내 지방지에 계속 보도되었다.<sup>9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하르방은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원로들의 증언과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하여 도면을 만들고 돌하르방의 위치를 역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원래 위치를 찾아내 그곳에 표석이라도 남기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세계의 석상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돌하르방의 유래 및 형태, 기능, 기법 등 종합적인 연구 조사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돌하르방 창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창조적 계승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

98) <보호받지 못하는 수호신 돌하르방>, 제민일보, 2000년 9월 22일자.  
<돌하르방 “내자리는 어디”>, 제민일보, 2002년 1월 24일자.

### III. 제주문화상징물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 1 제주문화상징물의 의미

2006년 7월 26일 문화관광부에서는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표하였다. 100대 민족문화상징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100가지 문화상징”을 말한다.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민족문화상징은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상징, 강역 및 자연상징, 역사상징, 사회 및 생활상징, 신앙 및 사고상징, 언어 및 예술상징 등 6개 분야에서 선정됐다. 100대 민족문화상징은 우리 민족의 기저에 흐르는 문화적 특징과 민족문화의 정수를 찾기 위해 선정된 것이다. 이들 민족문화상징은 우리 문화 유전자(DNA)를 찾아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전통문화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제공하며 민족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중 순수 제주도 것으로는 ‘사회 및 생활상징’ 분야에 ‘잡녀(해녀)’, ‘돌하르방’, ‘돌담’이 선정됐다.<sup>99)</sup> ‘잡녀’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전통적 잠수문화이자 제주여인의 강인한 삶과 독특한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돌하르방’은 제주도를 상징하는 석조물이기 때문에, ‘돌담’은 삼다도 제주의 상징으로 현무암 돌담 자체가 빚어내는 경관의 아름다움 때문에 각각 선정됐다.

한편, 문화관광부의 100대 민족문화상징 발표에 이어, 200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주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제주의 문화상징을 개발하고 제주 문화유전자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전

99) 강역 및 자연 상징으로 한라산이 배제되었다는 것은 민족문화상징의 지역적 배려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강역을 한라에서 백두까지라 하고, 한라산의 자연(동·식물, 경관)적 가치 또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라 할 때, 100대 민족문화상징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었다. 따라서 제주문화 99상징, 제주10대문화상징의 첫머리에 ‘한라산’을 놓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통문화에 기반한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제주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 제고 및 홍보”<sup>100)</sup>이다.

선정된 제주문화상징에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상품화·산업화함으로써 ‘제주문화원형의 실체 찾기 및 정체성 제고, 문화의 시대 제주문화의 산업화 기반 마련, 제주문화의 홍보 및 세계화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편찬 사업’ 사업 계획 수립 후, 자문위원회와 발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4월~2007년 12월까지 제주문화상징을 발굴하고 가선평하였다.<sup>101)</sup> 제주문화상징의 발굴·선정은 다음의 8가지 기본원칙을 따랐다.

1. 자연상징, 역사상징, 사회 및 생활상징, 신앙 및 언어·예술상징 등 포괄적인 범주를 설정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적절히 안배하여 총체적으로 선정하였다.
2. 가능한 제주만의 상징성이 두드러지고 문화콘텐츠로써 외연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홍보물로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상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3. 가장 제주적이면서도 세계화 시대에 국제적 유산으로서 경쟁력이 있고 미래적 전망이 드높은 상징물을 집중 발굴하여 제주의 자연·역사·문화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징물에 주안을 두었다.
4. 제주를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을 드러낼 수 있고 포괄적인 것보다 구체적인 상징물을 선정하였다.
5. 제주문화의 상징성이 강하게 내포된 무형의 문화유산도 세계화의 가능성이 두드러진 것은 선정하였다.
6. 제주도라는 이미지가 강렬하면서 전국 대상 인지도가 높은 상징을 선정했으며, 또한 상징으로 선정되었을 때 인기 있는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염두에 두었다.
7. 문화상징에 있어 문자로 기록 가능한 자료가 있고 영상으로 이미지화가 가능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8. 특수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기하였으며 혹시나 중요한 것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문위원회와 발굴위원회를 두어 서로 긴밀히 검증하며 교차 선정하였다.

이 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

100) 김순이,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선정 기준」,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 제주문화예술재단 주최, 2008. 1. 9.

101) 제주 10대 대표문화상징과 99가지 문화상징을 발굴, 개발 사업에는 발굴을 위한 상징의 범주를 200여개를 선정하고, 자문회의 및 발굴회의, 합동회의 등을 개최하여 99개 제주문화상징(안)을 선정하였다. 제주문화상징(안) 선정에는 성인 19세 이상 제주도민 525명의 여론조사 결과도 반영하였다.

최<sup>102)</sup>하였고, 문화상징 자문위원과 발굴위원의 합동회의 및 도민여론 조사<sup>103)</sup>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및 부가가치 창출과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를 대표하는 제주10대 문화상징물을 최종 선정하였다.<sup>104)</sup>

이번에 선정된 문화상징물은 ‘한라산, 해녀, 제주어, 제주4·3,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굴, 오름’ 등이다.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 배경 및 그 의미는 아래와 같다.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선정 배경 및 의미】**

10대 상징물	선정 배경 및 의미
한라산	제주인의 정신적 지주이자 생태계의 보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상징>
해녀	제주여성의 표상이자, 제주여성문화의 아이콘 <관련문화유산: 당, 해녀복, 해신제, 해녀항일 등>
제주어	제주문화원형요소이자 중세국어 연구의 토대
제주4·3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
돌문화	돌로 된 화산섬, 제주문화의 또 다른 아이콘 <관련문화유산: 돌하르방, 돌담, 산담, 잣성 등>
제주굿	제주인의 대표 신앙 유산. 큰굿, 당굿, 무혼굿 등 생명력 강하게 전승되고 있음
제주초가	제주주생활의 상징. 바람에 불리지 않는 지붕, 굴목 등 구조와 건축재의 지혜가 담긴 주거문화유산
갈옷	뾰족감을 들인 노동복으로 화산섬 제주인의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복식유산
굴	제주의 상징 과일
오름	제주대표 경관자연이자 관광자원

따라서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사람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토속적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적 원형 상징물은 그 자체가 문화관광자원이면서 문화적 종다양성의 보고를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다.

102) 2008년 1월 9일 제주문화예술재단 개최

103) 제주문화상징(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는 2007년 10월 17일~11월 15일까지 성인 19세 이상 제주도민 525명(일반인 460명,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04) <道, 한라산 등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최종 선정>, 제주의 소리, 2008. 3. 9.

## 2. 제주문화콘텐츠의 의의

콘텐츠는 내용이나 목차를 말한다. 문화콘텐츠·디지털콘텐츠·인문콘텐츠라는 용어에서의 콘텐츠는 단순한 내용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테크놀로지를 전제하거나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내용물로 정의된다.<sup>105)</sup> 이처럼 콘텐츠가 미디어나 기술을 전제로 하는 내용물로 인식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디지털기술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아날로그 콘텐츠도 가능하고 문화적인 소재를 기획하고 포장하여 상품화한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드높인 것”이라고 좀더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06)</sup>

여기에서의 논의도 이런 폭넓은 정의에 바탕을 둔다. 말하자면 문화콘텐츠는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 정도로 인식해도 될 것이다.

문화적인 요소가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는 점차 국가간 또는 지역간 경쟁력을 평가해 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문화적인 전통과 요소, 지역의 문화적 특성, 역사적 사실, 문화유산, 전설 및 신화, 관습이나 민속신앙, 전통축제, 민속놀이, 의식주의 관련된 고유한 특성 등의 요소들이 사회나 문화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고유한 특성이나 정체성을 표현해 주는 중요한 기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때로 각각의 사회집단이나 계층의 문화적 특성을 부각시켜 차별화기제로 사용되고,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과정에 개입하게 되면서 점차 ‘문화콘텐츠’ 또는 ‘문화콘텐츠의 원형’이라고 통칭되고 있다. 또한 이것이 지역적 맥락을 토대로 할 경우에는 ‘지역문화콘텐츠’라고 불리기도 한다.<sup>107)</sup>

그러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과는 달리 이 용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많은 문헌들에서 저자의 작위적인 정의방식에

105)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40~41쪽.

106) 최연구, 위의 책, 59~60쪽.

107)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제8호, 인문콘텐츠학회, 2006, 40쪽.

따라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1999년 정부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문화콘텐츠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키고자 하면서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본격적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때 문화콘텐츠라는 용어는 이미 ‘산업화’ 또는 ‘문화콘텐츠의 상품화’라는 기본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디지털 기술을 토대로 한 원소스멀티유스(OSMU)<sup>108)</sup>를 지향한다는 것이다.<sup>109)</sup>

문화콘텐츠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까지는 유사한 맥락적 용어로 ‘문화자원’이 있었다. 때문에 문화자원과 문화콘텐츠는 그것들이 사용되는 방식이나 실생활에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이 두 용어간의 관계나 사용상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한 한 사회 구성원의 정신적인 구심점 역할 및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문화원형 혹은 문화요소 등의 개념과 실용화·디지털화에 더 무게중심을 두는 문화콘텐츠 개념은 본질적인 가치는 동일함에도 분석하는 관점이나 방법에 따라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혼란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은 지역에 토대를 둔 문화콘텐츠인 ‘지역문화콘텐츠’의 개발 문제이다.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즉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시 원소스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것은 지역문화가 가지는 문화적 역량과 가치이며,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된 콘텐츠가 진정한 지역문화콘텐츠로서 가치를 가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문화콘텐츠, 원형, 문화이론에 대한 범주별 연구, 문화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범주별 연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여기서 개발된 지역문화콘텐츠가 문화산업발전의 기본 재료가 되어 상품화되는 과정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처럼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는 그 콘텐츠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관점이 달라진다. 최근까지도 우리의 관심은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이

108) OSMU(One Source Multi Use)는 하나의 기술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109) 이윤선, 『민속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론』, 민속원, 2006, 19~20쪽.

있지 ‘지역문화콘텐츠 연구’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즉 어떻게 하면 전통적이면서 특이하고 가치 있는 콘텐츠를 찾아내어 좋은 상품으로 만들 것인가가 주된 관심거리였지, 그 콘텐츠 자체가 지닌 의미 및 가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sup>110)</sup>

문화가 문화산업과 ‘시장적 제휴’를 통해 그 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킬 수 없는 한계가 늘 노정되고 있다. 여기서 최대의 관심사는 문화산업과 관계를 맺는 문화의 산업적 가치로의 전환이다. 문화는 그 자체로서의 위상을 지닐 수 없고, 산업적 가치로 쉽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 문화산업과 쉽게 ‘시장적 제휴’를 맺을 수 있는 문화, 이러한 문화가 예술적 가치를 경쟁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한다. 이는 문화의 가치가 붕괴되는 조짐이라고 할 수 있다.<sup>111)</sup>

특히 지역문화축제가 그러하다. 현재 국내에서 열리는 지역문화축제는 1,400여 개 정도라 한다. 그러나 모든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중에서 약 600여 개 정도의 축제만이 어느 정도 성공한 축제로서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절반 정도의 축제는 유명무실하다. 이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 산업영향력이나 그로 인한 경제효과만을 분석해 내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결론내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만 강조할 뿐, 축제의 의례적인 의미는 물론 문화적인 가치 등에 자세한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즉 지역문화축제는 지역축제의 중요한 콘텐츠가 지역의 오랜 과거의 역사와 전통, 정치적, 경제적, 자연적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되지 않으면 그것이 현재 재창조되고 더 나아가 상품화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전국 문화산업정책은 물론 각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제주문화콘텐츠산업들은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 데에는 소홀한 채, 산업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화콘텐츠사업들은 문화요소나 문화자원의 근본적인 의미 탐색에 중점을 둔 사업이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문화콘텐츠 연구는 이러한 문화적인 요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되어 있고 문화콘텐츠의 내용과 의미 분석보다는 그것의 활용가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문화콘텐츠 연구와 콘텐츠 활용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

---

110) 류정아, 앞의 글, 41~42쪽.

111) 고명철, 『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화사, 2005, 106쪽.

역문화콘텐츠 연구 및 개발은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주문화를 콘텐츠화하려면 먼저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적·고고학적 고증 및 역사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 찾기 등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이란 어떠한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역사적·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원형을 활용하여 유형에 알맞은 소재를 선택하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으로 미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상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선택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이것은 드라마 및 영화·애니메이션의 대본, 게임, 축제기획 등을 의미하며 그 내용과 표현 방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sup>112)</sup> 스토리텔링은 문화에 내재된 정신, 사회적 분위기 및 변화, 관련된 주요 역사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및 콘텐츠스토리를 멀티미디어화하고 상품화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콘텐츠 개발 단계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문화콘텐츠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비하고, 그 결과 제주문화콘텐츠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상품화만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즉 제주문화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인문적 요소를 산업적 요소로 맞바꾸려는 성급한 시도가 제주문화콘텐츠의 심도 깊은 연구를 방해하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문화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원형 연구 단계에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출된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작업 단계로 이어질 것이다.

문화원형 연구와 스토리텔링 작업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인문학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동일 문화요소라고 해도 그것을 문화원형의 단계와 스토리텔링 단계에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과 디지털의 단계와 상품화 단계에서 분

112)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177쪽.

석하고 연구하는 것은 투입인력, 사용방법이나 기술, 산출물의 저장방식과 활용 방식, 결과의 활용과 최종결과물의 산출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단계별 전문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문화원형의 단계와 스토리텔링 단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단계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이는 문화원형에 대한 순수인문학적 연구에 불과하므로 문화콘텐츠사업에서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제주문화콘텐츠화는 제주문화원형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와 실용화가 상호간의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제주문화콘텐츠 연구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문화콘텐츠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문화원형 단계와 스토리텔링 단계이다. 또한 성공적인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기획·창작·마케팅 전개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자적이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 단계의 학술적 고증과 분석 등을 통해 찾은 문화원형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3차원(3D)이나 가상현실 체험 등 현란한 기술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문화원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정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영화, 캐릭터로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것은 스토리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원형 단계에서의 충실한 연구 작업을 통해 수많은 자료에 담긴 이야기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제주문화상징물을 문화콘텐츠화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토리텔링은 생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야 한다. 문화는 자연환경과 긴밀한 상관성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의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자연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이다. 이는 바람, 외세, 재앙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으로 나타난다. 돌담은 바람과 외세 침탈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면, 수호신이면서 주술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돌하르방은 생활 속에서 재앙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문화의 산물이라면 제주사람들

은 늘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극복은 자연을 파괴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생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간은 자연에 대한 문명의 우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생태 위기가 생겼다. 따라서 인간 중심주의 사고를 버리고 늘 인간과 자연이 상생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이는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상징물의 콘텐츠화는 원래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및 의의·가치 등을 고려해 제주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지 단지 흥미위주여서는 안 된다.

주강현은 제주문화상징 활용방안에 대해 “제주문화를 대표하는 제주상징의 디지털 이미지 구축, 우표 및 그림엽서 발행, 지속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홈페이지 개발 및 꾸준한 업데이트와 정보 교류, 어린이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제작, 제주상징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지원, 제주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 개발, 제주상징 방송프로그램 및 동영상 제작”<sup>113)</sup>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문화시대를 이끄는 문화콘텐츠산업은 고속 성장산업이다. 왜냐하면 문화콘텐츠사업은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무형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 제주문화상징 선정물들은 모두 제주문화원형으로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 예술적 콘텐츠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선정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문화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문화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사고의 전환 및 사회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화콘텐츠는 인문사회분야, 문화예술분야, 과학기술분야가 서로 융합되어야만 가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를 중심에 두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

113) 주강현, 「제주문화상징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집, 2008. 1. 9.

### 3. 제주문화콘텐츠의 활용방안

문화콘텐츠는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문화자료를 원천으로 한 콘텐츠를 말하며, 문화산업의 아이টে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간 것을 의미한다. 제주 문화콘텐츠화 방안은 여러 측면에서 거론될 수 있다.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화,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이 그것이다.

문화는 자연 환경에 대응하고 그에 따라 형성·발전되는 인류 생활 수단의 총체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한 토지를 무대로 집단에서 집단으로 전수·계승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란 특정한 지역적 특색을 지니게 된다. 제주문화는 제주인들이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룩한 제주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생활양식이 내재되어 있다. 물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조상들의 문화를 고수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지역의 전통문화는 다른 여가문화보다 교육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요즘 지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므로 교육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에듀테인먼트 요소로 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돌문화를 대표하는 돌담, 정낭, 돌하르방의 디지털 콘텐츠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또한 문화콘텐츠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문화원형의 역사·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장르 혹은 매체에 따라 상상력을 가미하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즉 문화원형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통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인류의 공유물로서 활용할 때 비로소 문화유산의 본래 의미를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태의식을 반영한 제주 문화상징물의 스토리텔링은 교육용 에듀테인먼트는 물론 영화 및 애니메이션, 게임 제작, 다채로운 캐릭터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행서적, 여행상품 소책자, 사진, 엽서, 그림, 관광안내소의 안내물, 관광안내사의 해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전달된다. 캐릭터는 문화콘텐츠에서 산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개성 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험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1) 돌담

제주의 돌담을 흑룡만리(黑龍萬里)라 부른다. 중국의 만리장성을 황룡만리라 부르거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제주도 만리갯담을 부르는 별칭이다.

집 주위를 둘러 바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올렛담을 쌓고, 밭에는 밭담, 산에는 산담과 갯담이, 바다에는 원담과 환해장성 등등 제주에는 돌담이 없는 곳이 없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자 한 제주사람들의 삶의 소산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인 의미는 물론 미학적인 가치까지 제공해 준다.

이처럼 돌담은 오랜 세월 동안 제주사람들의 정신과 생활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아 왔으나, 지금까지는 제주도내 관광자원의 범주에서는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보존하고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제주가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담의 콘텐츠화 방안으로 첫째, 보편적인 문화이면서 변별적인 문화인 제주의 돌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제주 돌담의 역사적 유래, 제작방식, 종류 등 돌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화보 형식의 인문집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돌담 사진 전시회 개최 및 우편엽서 제작은 제주 돌담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돌담의 보존 및 관광지를 조성하고 돌담 산책로를 개발하여 돌담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해야 한다. 제주의 돌담은 단순히 구역의 경계 표시가 아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돌담의 기능이 달라진다. 따라서 이러한 제주 돌담의 다양한 쓰임새를 정리하여 사진과 함께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아름다운 돌담길 걷기와 같은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사단법인 제주 올레는 ‘느림의 미학’을 표방하며 지난 2006년부터 제주올레걷기 행사를 하고 있다. 올렛길을 만들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의 아름다운 길 걷기를 홍보하고 있다. 최근 ‘느림의 미학’을 원하는 관광객이 점차 늘고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돌담길을 선정하고 돌담 홈페이지에 돌담 산책길 코스, 주변 관광지 안내, 맛집 및 숙소 등과 함께 콘텐츠화한다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돌담의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돌담은 쌓는 장소 및 기능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돌담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다. 즉 자연의 바람을 극복하고, 외세의 침탈을 막아내는 돌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가미하면 풍부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및 게임,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에는 ‘제주의 어로 기술 원담’이라는 애니메이션 하나 밖에 없다. 따라서 돌담 각각의 의미 및 가치, 역사적 유래 등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축제와 행사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재와 현대사회의 생활문화가 집약적으로 녹아있는 인류의 유산이다. 축제와 행사의 스토리텔링이란 이야기나 창작소재를 지역 축제나 행사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 제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축제와 행사의 주제를 정한 후 관련 소재를 발굴하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함으로써 축제의 주최자와 관광객, 지역민이 모두 축제 주제와 관련된 스토리를 즐기는 과정을 연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돌담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민속촌에서는 돌담 쌓기 행사, 이호테우축제에서는 원담을 이용한 고기 잡기 행사 등을 개최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담의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축제 및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돌담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주제공원을 만들 수 있다. 즉 돌담길을 이용한 미로공원 같은 것이 그것이다.

## 2) 정낭

정낭은 실용적인 대문이면서 주술적인 통행금지 기능을 한다. 정낭을 걸쳐 놓음으로써 마소는 물론 외부인, 심지어 도둑까지도 출입을 금지한다. 한반도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대문과는 다르기 때문에 제주에는 대문이 없다고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에는 대문이 없지만 도둑이 없다고 하여 그것을 미풍양속이라고까지 칭찬한다. 하지만 정낭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제주에는 집안 곳곳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이 신들의 내력을 말해주는 것이 <문전본풀이>인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리석은 아버지는 대문으로

달아나다 정주목신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마소나 외부인, 도둑이 감히 집안에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정낭에 깃든 신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낭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첫째, <문전본풀이> 및 정낭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애니메이션 및 게임의 기본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낭을 소개한 대부분의 자료들은 그것이 제주의 독특한 대문이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춰 정낭이 집주인의 부재를 알리는 암묵적인 약속 체계라는 점과 도둑이 없는 제주의 미풍양속을 보여준다는 점만 강조해 왔다. 즉 정낭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기능 및 의미는 간과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정낭에 담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이를 스토리텔링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때 정낭에 담겨 있는 제주인의 의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한림읍 상명리에서 대문을 모두 철거하고 대문 대신 정낭을 설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최근 관공서, 일반 주택, 밭의 입구에 정낭이 설치된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낭을 건축 디자인으로만 사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사실 높은 담장과 대문이 있다고 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대문은 물론 현관문까지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이다. 하지만 높은 대문 대신 정낭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낭을 디자인하여 신이 집을 지켜준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각박해진 현대 사회에서 인간을 신뢰하고 싶어하는 작은 소망 때문일 것이다.

둘째, 캐릭터 개발이다. 외부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정주목신을 캐릭터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는 <문전본풀이>의 내용을 알고 있거나, 혹은 최소한 정주목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는 물론 다른 문화권의 문화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예를 들어 들하르방은 처음부터 제주의 상징물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문화 상징물들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이것들의 노출 빈도를 높여 관광객들에게는 독특한 제주문화를 안내하고, 제주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주목신과 정낭의 캐릭터 개발은 중요하다. 그리고 캐릭터 개발과 함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안내물을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낭은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하는 통신 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낭을 조그맣게 축소시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연구실 문 앞 등에 걸어 놓고서 주인의 부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를 걸치면 가까운 곳에 외출중임을, 두 개를 걸쳐 잠시 거래처를 방문한다든가 강의중임을, 세 개를 걸쳐 퇴근했음을, 하나도 걸치지 않음으로써 자리에 있다는 간결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정낭의 기능 및 미학적 가치를 살린 하나의 관광토산품이 될 것이다.

### 3) 돌하르방

관광객들에게 제주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하르방을 말한다.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처럼 제주의 돌하르방은 외지인들에게는 특별하다. 즉 돌하르방은 제주의 상징물로 활용되어 제주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관공서 및 학교, 아파트 입구에서도 볼 수 있고, 다리 난간에서도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가로등에서도 돌하르방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제주시 북촌리 돌하르방공원 및 돌문화공원에서는 제주도 민속자료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돌하르방을 실물 크기로 재현한 것들도 볼 수 있다. 이제 돌하르방은 온·오프라인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의 대표적 석상인 돌하르방은 이제 국내에서만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진출하고 있다. 때문에 돌하르방의 가치와 의의를 전파하고, 제주 나아가 한국 고유의 민속 문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산업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돌하르방은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의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조형물로서 세워지거나 관광 상품화하는 돌하르방은 전부 제주목의 양식을 본떠 만든 것이다. 심지어 성읍민속마을의 돌하르방도 제주목 양식을 본떠 만든 것이 있다. 성읍은 과거 정의현이었다. 그렇다면 정의현에 세워졌던 돌하르방 양식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목·정의현·대정현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돌하르방을 만들어야 조형물로서의 가치 및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다.

돌하르방은 수호신적 기능과 함께 주술 종교적 기능이 있었다. 그러므로 돌하르방 제작에는 외적인 조형문화는 물론이고 내적인 측면에서 신성시했던 민간에

서의 의식세계도 그 바탕에 담아낼 때 토산품도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

돌하르방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지원 등 디지털 콘텐츠화 및 홍보물 제작에 지원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에는 돌하르방과 관련한 서적 및 사진, 동영상 등이 있으나 새로운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함은 물론 동영상 및 애니메이션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애니메이션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돌하르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천이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는 스토리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돌하르방에 관한 원천자료들을 파악하고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돌하르방이 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도 모르고 돌하르방의 유래라든지 역할이 무엇이었던지도 모른 채 그냥 공원 한 편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돌하르방과 함께 안내판이 함께 세워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에 돌하르방에 얽힌 설화, 속담 등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원형의 하나로서 인식시키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현무암의 특성상 조경의 목적이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등의 이유로 밀반출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sup>114)</sup> 따라서 정부에서는 석재 공급 및 보존 역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돌하르방은 과거 성문을 지키던 수호신이었다. 지역 내 공공장소에 설치하고 국내외 자매결연 한 도시에도 돌하르방을 세움으로써 제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돌하르방은 제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외지인들에게는 낮은 관심의 대상이다. 따라서 외지인이 제주 상징물을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외지인이 제주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바로 공항이다. 따라서 공항 안에 쉼터를 조성하여 삼주현(三州縣)의 다양한 돌하르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의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안내책자 및 안내판도 만들어야 한다.

114) <자연석 밀반출 단속 '구멍'>, 제민일보, 2006. 8. 9. <끊이지 않는 자연석 밀반출>, 제주일보, 2007. 4. 11. <제주 자연석 밀반출하려다 붙잡혀>, 제주일보, 2008. 3. 29. 등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보존자원인 제주자연석이 밀반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관광객들은 돌하르방이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석상이기 때문에 사진 한 번 찍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왜 제주에 이런 돌하르방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는 문구 하나 찾기 힘들기 때문에 공항 안에 쉼터를 조성하여 돌하르방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 홍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돌하르방 소재의 예술작품, 돌하르방의 신소재 개발방안 등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보존과 가치 계승에 힘써야 한다.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돌하르방은 수호신적 기능을 비롯하여 주술적 기능 등을 가진다. 하지만 돌하르방의 수호신적 기능 및 주술적 기능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물다.

예를 들어 주술적 기능 중 잉태기원의 기능이 있다. 즉 돌하르방의 코의 가루를 물에 타 마시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속신 때문에 전국의 돌미륵이 수난을 당했던 적도 있다. 따라서 돌하르방의 원재료인 현무암 가루를 돌하르방 모양의 작은 통에 담아 행운의 가루로 상품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잉태기원 때문이 아니라도 주술적 기능으로 돌가루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관광토산품을 구입하는 목적은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의 특색 있는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기능을 고려하여 구입하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관광토산품에도 돌하르방에 관한 간단한 설명서를 덧붙인다면 훨씬 호응이 높을 것이다.

또한 돌하르방의 지역적 특색 및 기능을 고려한 스토리텔링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 개발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캐릭터 개발을 통해 돌하르방 모양의 도장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의 개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하르방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T셔츠 및 팬시 제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흙 등을 이용한 돌하르방 만들기 체험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 IV. 결 론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동안 척박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으로 이것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문화이다. 따라서 제주 혹은 제주인의 정체성 논의의 중심은 바로 제주문화라 할 수 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대표 화두는 전통문화의 세계화이다. 이처럼 문화가 자산이 되고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제주문화는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기초가 될 제주문화원형을 발굴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 제주문화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10대 문화상징물을 발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밝혀 줄 많은 제주문화상징물 중에서 생활상징이라 할 수 있는 돌담, 정낭, 돌하르방을 선정하여 제주문화의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이 문화원형을 바탕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21세기에 제주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미약하게나마 제시하였다.

고찰의 결과를 요약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제주의 미학적 요소인 돌담을 언제부터 쌓았는가 하는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에 대한 최초의 역사적 기록은 『동문감(東文鑑)』에 보인다. 김구(金丘) 관관이 밭과 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권세가의 토지 침탈을 방지하고자 ‘돌담’을 쌓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과 돌이 많은 제주 자연 환경의 특징으로 보아 돌담의 이용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즉 나와 너의 경계를 가르는 것보다 바람을 막아 농사를 돌보고자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담은 산과 밭, 주거 공간, 해안 등지에서 소유권 경계, 바람막이, 방어시설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축조되었다. 또한 돌담은 쌓는 장소 및 방법이나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능과 명칭 또한 다양하다.

돌담에는 집담, 밭담, 올렛담, 원담, 산담, 통싯담, 잣백(담), 머들(돌) 등이 있다. 또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환해장성과 10마장(馬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돌담의 용도는 첫째, 바람 많은 자연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풍의 기능을 우선 들 수 있다. 둘째, 방목(放牧)과 관련되는 것으로 마소의 침입을 막는데 있다. 셋째,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세력가의 토지 잠식을 막아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민심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로 돌을 제거, 정리함으로써 경지면적의 확대를 들 수 있으며, 다섯째는 작업능률의 향상이다.

돌담의 의미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돌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돌담은 있으나 제주에서와 같이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 돌담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제주 돌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제주 돌담은 다양한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즉 돌담을 쌓는 장소 혹은 기능, 형태에 따른 다양한 분화 형태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돌담은 모두 자연적으로 쌓았다는 점이다. 넷째, 다공질의 현무암으로 길게 한 줄로 이어 쌓은 돌담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는 돌을 쌓으면서 바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어 바람에 돌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제주의 자연조건이 만들어 낸 문화유산으로서의 돌담의 가치는 첫째, 역동적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는 점, 둘째, 공동체 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점, 셋째, 미적 가치와 함께 종교적 신성성 및 숭고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자연과의 친연성이 높다는 점, 다섯째, 돌담은 미학적·문화적 요소의 하나로서 제주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제주의 돌담은 화산섬인 제주에서 바람과 땅을 돌로 다스려온 제주인의 생활문화유산으로서 돌담 안에 밭작물을 재배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지속적인 삶이 전제되어야만 그 돌담 유산도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보존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담의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정책적 수단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마을 자치회 등의 자발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낭이 언제부터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긴 나무막대기를 가로로 걸쳐 놓아 대문 역할을 했던 것은 한라산의 방목중인 마소를 가두어 기르기 위한 ‘살채기’라는 ‘야외의 문’에서 비롯된 풍속인 것 같다. 즉 제주도에는 말과 소를 방목해 온 전통이 있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마소로부터 마

당에 넣어 건조시키는 곡식이나 우영에 심어진 채소를 보호하기 위해 정주목에 정낭을 걸쳐 놓았다.

‘정낭’은 또 집주인과 방문객과의 암묵적인 약속 체계이기도 했다. 정낭 하나를 걸쳐 놓은 것은 집주인이 잠시 집을 비웠다는 표시이고, 정낭 두 개를 걸쳐 놓은 것은 주인이 밭이나 이웃 마을에 잠시 갔지만 아이들이 근처에 있다는 표시이다. 또 정낭 세 개를 가로질러 놓은 것은 집 주인이 멀리 가서 며칠이 지나서야 돌아온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정낭의 신호로 마을 주민들은 정보 교환을 해 온 셈이다. 방문을 삼가거나 오래 집을 비워 둘 경우 이웃들이 가축을 돌봐 줄 수 있는 신호 체계로서, 신뢰와 인심을 나눈 공동체 문화의 산물이기도 하다. 또한, 정주목에는 그 집의 수호신(守護神)의 성격을 지닌 신(神)으로 ‘올레직이’ 또는 <문전본풀이>의 ‘남선비’라는 신격(神格)을 부여받는 민간신앙도 지켜지고 있다.

이처럼 정주목에 정낭을 걸쳐 두었기 때문에 마소의 침범과 사람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 집주인은 마음 놓고 바깥일을 볼 수 있었다.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집을 지켜 주는 것은 ‘정주목’과 ‘정낭’이라 할 수 있다.

정낭의 문화사적 가치를 실용적·과학적·정신사적·미학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제주 전통 가옥의 세거리, 네거리 집에는 내문(內門)이 별도로 있으나, 대부분의 가옥에는 문이 잘 발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제주가 고온다습하고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정낭이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둘째, 정낭의 과학적 측면이다. 정낭은 집 마당에 넣어놓은 곡식을 마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 그 정보 표현 측면에서 간결하면서도 과학적이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정신사적 측면에서 보면 제주사람의 집이라는 ‘신성공간’에 대한 믿음이 정낭에 나타나 있다. 제주 전통 가옥의 구조상 정낭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때문에 정낭에 깃들여 있는 정주목신이 가장 먼저 외부인 혹은 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낭은 단순한 실용물이 아니라 신이 존재하는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즉 집과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제주사람들의 열망이 정낭에 담겨 있으며 이는 바로 대문과 도둑이 없다는 제주의 인간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제주의 독특한 주거문화 요소 중 하나인 정낭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정낭과 같은 대문이 시베리아 사하공화국과 스리랑카 및 캄보디아, 태국 등지에서도 있음이 확인되어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정낭은 제주도 고유의 것이라기보다는 북방문화 및 남방문화에도 존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시아 해양문화 교류의 증거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남방문화의 해양 교류에 대한 고찰이 계속 이루어질 때 제주 문화의 속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쿠로시오 해류 문화권과의 비교 연구가 절실하다.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은 제주문화는 물론 한국문화를 알리는 외교사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돌하르방의 기원 및 유래에 관한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관련학자들이 북방·남방문화 기원설, 본토 장승의 유입설, 제주도 자생설이라는 여러 견해들을 추측으로만 논하고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도 행정 구역이 삼분(三分)하였던 약 500년(1416~1914년)동안 제주목·대정현·정의현 도읍지의 동·서·남 성문 옹성구비에 쌍쌍이 세워졌었다. 제주목에는 23기, 대정현과 정의현에 각각 12기로 모두 47기가 있다. 이들 돌하르방의 전체적인 형태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부리부리한 큰 눈에 큼지막한 코, 머리에는 병거지를 썼고 두 손은 배에 나란히 해서 위엄 있게 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각 고을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습 및 크기도 다르다.

이처럼 돌하르방은 모습과 크기에서 모두 다르며, 또한 돌하르방 중 일부는 기석이 있는 것이 있어 특징적이다. 만약 이것이 가로로 나무를 걸쳤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마소의 침입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던 ‘정낭’과 비슷한 반면, 정낭이 여러 개의 나무를 위아래로 걸쳐 놓음으로써 출입 차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제주사람들은 정낭을 걸쳐 놓으면 마소는 물론 외부인 심지어 도둑들까지 출입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돌하르방 기석의 가로지른 나무도 이러한 민속적 관습의 잔존으로 통행을 알리는 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제주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이 석상은 다양한 재래의 명칭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주목·대정현·정의현에서 불리는 명칭이 각기 달라 제주도 전반적으로 통

용되는 명칭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것을 1971년 제주도 지방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하면서 ‘돌하르방’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으나 이는 재래의 명칭은 아니다.

따라서 제주 삼주현성(三州縣城)의 석상에 관한 가장 흔한 명칭은 ‘우석목’, ‘무석목’, ‘벽수머리’, ‘돌하르방’이다. ‘돌하르방’이란 제주도 어디서나 어린이들을 비롯한 민간에서 쓰이는 명칭으로 ‘돌할아버지’의 제주방언이다. 이 중 ‘벽수머리’라는 명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벽수’는 영호남 지방에서 ‘장승’을 이르는 말이므로 ‘벽수머리’라는 명칭은 ‘돌하르방’의 유래를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즉 북방문화 기원설, 남방문화 기원설, 제주자생설 등 돌하르방의 유래에 관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돌하르방을 한반도 본토의 ‘장승’이 유입, 변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를 ‘벽수머리’라는 명칭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돌하르방의 기능을 크게 수호신적 기능, 주술·종교의 기능, 위치 표시 및 금표(禁標)의 기능으로 압축할 수 있다. 돌하르방은 제주삼읍의 도읍지 입구에 쌍쌍이 마주하여 서 있음으로써 도읍지 내는 물론 주민들의 평안과 융성을 지켜주며 기원하는 수호신의 기능을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는 주술·종교의 기능은 방사탑과 같은 기능 또는 축사(逐邪)의 기능으로서 난리와 악질 등의 사기(邪氣) 방어 기능, 잉태기원의 기능도 있었다고 한다. 셋째 위치 표시 및 금표의 기능이다. 돌하르방이 도읍지의 성문 앞에 세워짐으로써 도읍지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려줌과 동시에 성 바깥사람들이 성안으로 함부로 들어오는 일을 막아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돌하르방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조형미, 수호신적 기능, 주술적 기능면에서 생활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조형적 특징으로는 제주도 특유의 다공질 현무암으로 만들었으나 어느 지역 장승보다도 양식화한 일정한 형태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또한 그것은 간결한 형태 요약을 통한 단순미가 있으며, 그 전체적인 모습은 익살스럽고 해학적이다. 둘째, 민속학적으로 돌하르방은 역사적 시련과 자연과의 투쟁에서 적응하고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온 제주인의 진취적인 인간상을 대변해 주는 수호신으로 문화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돌하르방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그 관리 및 보존에는

소홀하다. 소중한 문화재는 원위치에 그대로 두어야 형태와 기능을 후세에까지 제대로 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자료로서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하지만 돌하르방은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으며, 또한 보호 시설 없이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들이 많아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원로들의 증언과 문헌 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래 위치를 찾아내 그곳에 표석이라도 남기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세계의 석상들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돌하르방의 유래 및 형태, 기능, 기법 등 종합적인 연구 조사가 더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재질의 돌하르방 창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창조적 계승의 노력 역시 필요하다.

제주문화상징물은 제주사람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가진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상징물은 제주문화의 유전자(DNA)를 찾아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부가가치 창출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민족문화에 대한 긍정적, 호의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토속적 원형질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 특유의 문화적 원형 상징물은 그 자체가 문화관광자원이면서 문화적 종다양성의 보고를 지켜낸다는 의미가 있다.

제주문화상징은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다. 제주문화상징 선정물들은 모두 제주문화원형으로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 예술적 콘텐츠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선정된 상징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대문화 속에 살아 있는 것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란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의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드높인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는 창의력·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정도로 인식해도 될 것이다.

제주문화를 콘텐츠화하려면 먼저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적·고고학적 고증 및 역사적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 찾기 등의 작업이 수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스토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토리텔링은 문화에 내재된 정신, 사회적

분위기 및 변화, 관련된 주요 역사 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콘텐츠 및 콘텐츠스토리를 멀티미디어화하고 상품화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산업정책들은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문화콘텐츠를 연구하는데에는 소홀한 채, 산업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문화상징물의 콘텐츠화는 원래의 역사적 의미와 기능 및 의의 가치 등을 고려해 제주의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문화의 콘텐츠화를 위해서는 제주문화원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문화콘텐츠화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문화원형 연구 단계 및 스토리텔링 단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문화상징물의 스토리텔링은 생태의식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제주문화유산은 오랜 세월 척박한 자연적·역사적 환경을 극복하며 만들어낸 제주만의 것이다. 자연 환경의 극복은 자연 환경을 정복과 파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상생해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제주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태의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돌담, 정낭, 돌하르방 각각의 문화콘텐츠 활용방안은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화, 스토리텔링, 캐릭터 개발, 관광자원으로의 활용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돌담’의 콘텐츠화 방안으로 첫째, 제주 돌담의 역사적 유래, 제작방식, 종류 등 돌담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화보 형식의 인문집을 제작, 돌담 사진 전시회 개최 및 우편엽서 제작은 제주 돌담의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는 돌담의 보존 및 관광지를 조성하고 돌담 산책로를 개발 등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돌담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해야 한다.

셋째, 바람을 극복하고, 외세의 침탈을 막아내는 돌담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스토리텔링은 애니메이션 및 게임, 교육용 에듀테인먼트 자료로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돌담의 스토리텔링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생태 문화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축제 및 행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돌담의 의미와 가치를 바탕으로 스토리가 있는 주제공원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정낭'을 콘텐츠화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다. 첫째, <문전본풀이> 및 정낭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애니메이션 및 게임의 기본이 될 것이다.

둘째, 캐릭터 개발이다. 외부로부터 집을 지켜주는 정주목신을 캐릭터로 만들 수 있으며, 캐릭터 개발과 함께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및 가치를 홍보할 수 있는 작은 안내물을 부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정낭은 집주인의 부재를 표시하는 통신수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낭을 조그맣게 축소시켜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연구실 문 앞 등에 걸어 놓고서 주인의 부재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낭의 기능 및 미학적 가치를 살린다면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돌하르방의 문화콘텐츠화 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대사전 지원 등 디지털 콘텐츠화 및 홍보물 제작에 지원해야 한다.

둘째, 돌하르방은 과거 성문을 지키던 수호신이었다. 지역 내 공공장소 및 국내외에 돌하르방을 세운다거나 공항 안에 돌하르방을 전시한 쉼터를 조성하는 등 제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스토리텔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돌하르방 소재의 예술작품, 돌하르방의 신소재 개발방안 등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도민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보존과 가치 계승에 힘써야 한다.

넷째, 돌하르방의 기능 및 의미, 가치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캐릭터를 개발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돌하르방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돌하르방 모양의 도장, T셔츠 및 팬시 제품 등 다양한 상품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흙 등을 이용한 돌하르방 만들기 체험 행사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가 시장적 제후를 통해 문화산업적 가치에 함몰되고 개발주의, 신자유주의를 비판 없이 용인하게 되면 문화가치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제주의 발달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량을 무기화하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1차산업을 생명산업으로 존중하는 생태주의와 만날 때 가능하다.

제주의 문화상징물 모두가 인간과 자연의 행복한 조화, 공존을 모색할 때 존속될 수 있는 것들이며, 생태적 사고를 바탕으로 할 때 문화콘텐츠 개발과 적용도 증폭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제주문화 코드 모든 것이 문화산업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문화산업이 그 문화적 전체 즉 문화에 내재된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전통이 현대적 삶에 체화되고 현대 문명과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때 문화콘텐츠 산업은 그 긍정적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연구 대상을 돌담, 정낭, 돌하르방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제주문화 전반을 고찰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대상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주문화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들 선정물들은 모두 생활문화 측면에서 고찰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리라 본다. 또한 이외의 제주문화상징물 및 제주문화의 의미를 밝히고 문화원형으로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 참고문헌

### ▲ 문헌

김성구, 『南遷錄』

이원진, 『耽羅誌』

### ▲ 단행본

고광민, 『돌의 민속지』, 도서출판 각, 2006.

-----, 『바다의 기술과 민속』, 『제주도의 생산기술과 민속』, 대원사, 2004.

-----,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고명철, 『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고시홍, 「돌담」, 『濟州學』 제2호 겨울, 제주학연구소, 세림, 1998.

김봉옥, 『제주통사』, 제주문화, 1987.

-----, 『증보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1.

김석익, 『탐라기년』,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

김세원 외, 『濟州文化의 再照明』, 도서출판 일념, 1986.

김영돈, 「돌하르방」, 『제주민의 삶과 문화』,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돌하르방」, 『제주성읍마을』, 대원사, 1999.

-----, 「돌하르방」, 『제주도 제주사람』, 민속원, 2000.

-----, 『제주 성읍 마을』, 대원사, 1999.

-----, 「제주도의 석상·석구」,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문화재 관리국, 1968.

김유정·손명철, 『제주의 민속문화② 제주의 무덤』, 국립민속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2007.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5.

김태능, 『濟州道略史』, 제주년감, 제주년감사, 1969.

김태일, 『제주 건축의 맥』, 제주대학교출판부, 2005.

淡水契編, 증보<耽羅誌>, 제주문화원, 2004.

북제주군문화공보실, 『내고장 傳統文化의 뿌리』, 1982.

- 송시태 외, 『제주의 민속문화④ 제주의 꽃자왈』, 국립민속박물관, 2007.
- 이운선, 『민속문화 기반의 문화콘텐츠 기획론』, 민속원, 2006.
- 이운형, 고광민, 『제주의 돌문화』, 제주돌문화공원, 2006.
- 이창식, 『전통문화의 문화콘텐츠』, 도서출판 역락, 2006.
- 이형상, <남환박물관>, 『탐라순력도 남환박물관』, 한국정신문화연구소, 1978.
- 인문콘텐츠학회, 『문화콘텐츠입문』, 북코리아, 2006.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 일반동산문화재(조사보고서)』, 1991 『제주민속 유적』, 1997.
- 제주문화원, 『譯註 濟州古記文集』, 제주문화원, 2007
- 진성기, 「제주도 돌하르방」, 『민학2』, 민학회, 1973.
- , 『제주도 민속』, 제주민속연구소, 1997.
- , 『제주민속의 멋1』, 열화당, 1979.
- , 『제주민속의 멋2』, 열화당, 1981.
- , 『제주민속의 아름다움-그 오묘한 빛과 향기』, 제주민속연구소, 디딤돌, 2003.
- 최연구, 『문화콘텐츠란 무엇인가』, 살림, 2006.
- 허남춘 외, 『제주의 민속문화⑤ 제주의 음식문화』, 국립민속박물관, 2007.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3.
-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6.
- Aniela Jaffe, 이희숙譯, 『美術과 象徴』, 서울 열화당, 1989.

#### ▲논문

- 강동언·고봉수, 「제주돌담의 구조 분석 연구」, 『제주조형연구』 1호, 제주대학교 조형연구센터, 2006.
- 강창언, 「환해장성 연구」, 『탐라문화』 11집, 탐라문화연구소, 1991.
- 김영돈,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石像」, 『한국문화인류학』 제5호, 한국문화인류학회, 1972.

김종석,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문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김종양, 「제주도 전통사회의 돌(石)문화-생활용구, 방어시설 및 사회적 기능체로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류정아, 「지역문화콘텐츠 개발의 이론과 실제」, 『인문콘텐츠』, 제8호, 인문콘텐츠학회, 2006, 40쪽.

문기선, 「돌하르방의 美術解剖學적 研究」, 『논문집』 13집, 제주대학교, 1981.

양용방, 「濟州島 돌하르방의 美的特性 研究」,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이문호, 「디지털 통신 호시로서의 정낭통신 시스템」, 『정보통신』 10호, 한국통신학회, 1993.

이상영, 「제주 전통돌담의 유지보전에 관한 의식조사」, 『농촌계획』 13집, 한국농촌계획학회, 2007.

최용복, 「제주도 농촌지역내 돌담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제12집, 2006.

최용복·정문섭, 「GIS를 활용한 농촌경관 분석 사례연구-제주도 돌담경관을 중심으로」, 『한국GIS학회지』 14권 3호, 한국GIS학회, 2006.

허남춘, 「제주문화 연구의 성과와 과제」, 『탐라문화』 제31호, 2007.

#### ▲ 기타자료

##### △ 사이트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이트 <http://www.unesco.or.kr>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사이트 <http://www.jnto.go.jp>

제주올레 홈페이지 <http://www.jejuolle.org/>

##### △ 신문기사

김유정, 김유정의 문화코드읽기, <돌담, 삶은 기록보다 앞선다>, 제민일보 2007.

4. 5.

<골목길 다 묶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 제주의 소리, 2006. 11. 15.  
<道, 한라산 등 제주 10대 문화상징물 최종 선정>, 제주의 소리, 2008. 3. 9.  
<돌하르방 “ 내자리는 어디”>, 제민일보, 2002. 1. 24.  
<보호받지 못하는 수호신 돌하르방>, 제민일보, 2000. 9. 22.  
<애월읍 하가리 돌담길 문화재로 거듭난다>, 한라일보, 2006. 10. 25.  
<우리 마을엔 대문이 없어요>, 제주일보, 2007. 6. 27.  
<자연석 밀반출 단속 ‘구멍’>, 제민일보, 2006. 8. 9.  
<제주 자연석 밀반출하려다 붙잡혀>, 제주일보, 2008. 3. 29.  
주강현, 「시베리아 레나강과 사하족」, 『세계의 켈트 여행지』, 경향신문, 2007. 3. 15.  
<하가리 돌담길 문화재 등록 어려울 듯>, 제주의 소리, 2006. 11. 17.

△ 방송 및 기타자료

KBS, 『역사기행』, 2007. 2. 25.  
『W』, MBC, 2008. 4. 25.  
경희대학교 디자인연구소, 『100대 민족문화상징 발굴 및 활용방안』, 2006.  
김태일, 「바람난 제주돌담 태풍을 막다」, 『과학동아』, 동아사이언스, 2003.  
『제주돌담의 역사·문화적 고찰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세미나』 자료집.  
『제주문화상징의 의미와 활용방안 세미나』 자료집.